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6월 12일)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10일 이웃종교 지도자들과 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사진은 진우 스님이 탁구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조계종 홍보국

진우 스님 "파리올림픽, 한마음으로 응원"

종지협 7대 종교 지도자들
7월 10일 진천선수촌 방문
불자 선수들에게 단주 선물
"마음 비우는 연습을" 격려
패럴림픽 선수에 사찰음식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공동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웃종교 지도자들과 진천선수촌을 방문,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진우 스님과 7대 종교지도자들은 7월 10일 충북 진천 선수촌을 격려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종지협 공동대표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종지협 운영위원장 도심 스님, 여운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국장, 한재우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조계종 체육인전법단장 호산 스님과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이 함께했다.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장재근 진천선수촌장, 이혁렬 한국대표선수단지원단장, 전기범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장 등도 배석했다.

진천 선수촌에 도착하자마자 장재근 선수촌장 안내로 훈련장을 찾은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은 한국의 대표 효자 종목인 양궁 국가대표선수들을 만났다. 진우 스님은 김우진·이우석·김재덕·전훈영·임희현·남수현 선수에게 "과녁을 제대로 맞춘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중요하지만 우선 마음이 안정돼야 실력이 나온다"며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정신적인 기운을 전하러 왔으니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돌아오라"고 격려했다.

배드민턴 훈련장에서도 이소희, 공희용, 백하나 선수 등을 만났으며 탁구 훈련장에서는 장우진·임종훈·조대성 선수 등을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장재근 선수촌장에게 격려금 3000만원을 전달한 진우 스님은 "메달도 중요하지만, 부담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시합에 임해달라"면서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응원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도 종교지도자들의 응원과 기운 덕분에 잘 해 낼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 젊은 세대에 맞는 종목 등을 다양화하고 학교 체육 정상화에 힘쓰는 등 체육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7대 종교지도자들은 식사 중인 선수들을 응원하며 단주 등을 선물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없애면 시합에 들어가서도 평소 훈련했던 실력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좋은 성과를 내,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덕 양궁선수는 종교지도자들의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평소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기도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준비를 잘 해서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4 파리 하계 패럴림픽 선전을 기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과 조계종 체육인전법단(단장 호산 스님)은 7월 11일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2024 파리 하계 패럴림픽 선수단과 지도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사찰음식 오찬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수들의 체력 증진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25가지 사찰음식이 제공, 선수단의 선전을 격려했다.

한편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는 파리 하계올림픽은 7월 26일 개막해 8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전 세계 206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서 1만 500명의 선수가 32개 종목 329개 세부 경기에서 메달을 놓고 우정의 대결을 펼친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22개 종목의 선수 144명, 지도자 118명을 합쳐 262명이 참가한다.

동국대 仝 불교 동아리에 장학금
"학업 정진해 자비로 회향하겠다"

동국대 단과대학·일반대학원의 모든 불교 동아리에 장학금이 지급됐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6월 19일 AI융합대학 불교동아리 '붓다이'로 시작해 7월 10일 미래융합대학 '퓨처핸접'까지 총 15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에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기금' 전달을 완료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 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제도로,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하며, 동국대 재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전달로 동국대 단과대학·일반대학원 불교 동아리 회원 150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동아리 회원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는 월정사, 통도사 등 교구본사부터 조계사, 봉은사, 흥천사, 수원사, 원법사, 칠장사 등 지역 사찰들까지 전국에서 동참했다. 특히, 오는 8월 퇴임을 앞둔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서광 스님도 제자들을 위해 장학기금 1000만원을 불교대학 불교동아리 '가람수호'에 쾌척해 감동을 자아냈다.

7월 8일 이뤄진 장학기금 전달식에서 서광 스님은 "과분한 감사 인사를 받게 되어 오히려 빚진 기분"이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불교발전과 학생들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의 앞날에도 앞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바라며,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동국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학금을 기부한 사찰들도 학생들과 맺어진 인연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붓다붓'에 장학금을 전한 수원사 회주 세영 스님은 "단과대별로 불교동아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드문 경우의 일이며, 이렇게 활기 넘치는 조직은 처음 봐서 매우 기쁘다"며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만큼 앞으로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학대학 불교동아리 '약사여래'에 장학금을 기부한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전국 대학 최초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가 만들어진 것은 큰 사건"이라며 "불교와 인연을 맺은 여러분들은 세상을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들 역시 재정적 여유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음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황정민(불교대학 불교학부 2학년) 학생은 "이번 장학금으로 학업과 취업을 위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자신만의 이득을 위한 일에서 벗어나 남을 위해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은 저의 시야를 넓히고, 이타적인 마음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수(이과대학 화학과 3학년) 학생은 "이 장학금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성장하고자 한다"면서 "제가 받은 자비를 기억하며 앞으로 저도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겠다. 스님들의 가르침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15개 단과대학, 대학원 동아리에
지역불자 장학기금 전달 완료해
전국 사찰서 장학금 릴레이 기부
퇴임 앞둔 서광 스님 동참 '감동'
150명 혜택… 장학금 지속 계획

이와 함께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교내 불교 동아리에 대한 장학금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5월 11일 '동국대 불교동아리 연합간담회'에서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앞으로 저와 대학은 모든 원력을 우리 불교동아리 활성화에 쏟겠다. 지도교수와 지도법사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장학제도를 개편하고 기부를 확대해 많은 불교 동아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연합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단과대학·일반대학원 불교 동아리 회장에게는 '동국건학장학'을 통해 연간 5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미래불자육성장학에 동아리 회원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게 된다. 새로 신설되는 '동국가람장학'을 통해서는 동아리 회원 모두에게 연 4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태고종 제6대 원로의장에 호명 스님 추대

7월 10일 개원회의서 만장일치
부의장에 지현·성오 스님 선임
보혜 스님 등 17명 승정 추대
호명 스님 "종단 발전 적극 협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제6대 원로회의 상반기 의장에 운설 호명 스님이 추대됐다.

태고종 원로회의는 7월 10일 서울 종로 한국전통불교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6대 원로회의 개원법회를 열고 상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원로회의는 제6대 상반기 의장으로 운설 호명 스님(전 총무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수석부의장에는 경담 지현 스님(전 호법원장), 차석부의장에 희범 성오 스님(전 행정부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태고종 제6대 원로회의 상반기 의장 호명 스님은 성월 복철 스님을 은사로 1962년 출가해 1964년 선곡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선암사 불교전문강원 사교과와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한 뒤 서울 노원구 염불사 주지, 제30세 선암사 주지를 역임했다.

총무원 사회부장을 시작으로 제11·12대 중앙종회의원, 서울북부교구 종무원장, 총무원 종무조정실장, 중앙사정원 사정위원, 총무원 부원장 등을 맡았으며, 서울 노원시민모임 공동대표와 노원경찰서 경승실장으로도 활동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으로서 종단 갈등을 성공적으로 봉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대 직후 호명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 발전을 위한 불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호명 스님은 "27대 집행부를 거치면서 종단 안정 기틀이 마련됐다면, 현재 28대 집행부에서는 종단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해지면서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종단 발전 사업에는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하다. 우리 원로스님들이 종단 발전을 위해 마음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호명 스님은 종단 발전 불사를 위한 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할 뜻을 밝혔다.


태고종 제6대 원로의장으로 추대된 호명 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는 종단 승정원의 승정을 원안대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보혜(경기동부)·혜운(서울강북)·지족(경기남부)·각림(제주)·법련(총무원 직할)·법장(충북)·보경(총무원 직할)·남파(광주전남)·법선(총무원 직할)·혜법(충북)·원광(인천)·수암(제주)·지암(광주전남)·해경(경기청련사)·운암(서울)·춘곡(제주)·법산(서울남부)·설운(경기북부) 스님이 승정으로 추대됐다.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제6대 원로회의는 그동안 중앙과 지방 종무기관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두루 겸비하신 새로운 원로스님들이 대거 추대돼 구성 면모를 일신했다"면서 "더 깊고 폭넓은 말씀으로 미래를 향한 종단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은 소납의 총무원장 취임 이후 보다 멀리 더 높게 나아가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의 자립화와 종단 서열재고 및 교육과 문화유산 보존 및 발굴 등 소납의 공약이 성공하기까지는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 해결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종도의 성원과 어른스님들의 신뢰를 믿고 있다"면서 "모두가 하나되는 응집된 동력으로 반드시 태고종의 전통과 정통성을 널리 알리고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제6대 원로의원으로 추대된 호명·법경·선혜·인월·지운·법선·덕수·금명·경담·관정·회범·운상·설봉·설신·벽산·월봉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 등이 참석해 원로회의 개원을 축하했다.

태고종 구족계 수계산림…"종단 화합·발전 앞장서라"

7월 9일 문화전승관 금강계단서
비구 38명 · 비구니 15명 탄생해
상진 스님 "대신심을 일으키라"


태고종은 7월 9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제23차 구족계 수계산림' 을 봉행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구족계 수계산림을 통해 새로운 출가 수행자들을 탄생시켰다. 이를 통해 비구 38명, 비구니 15명 등 총 53명이 태고종 홍가사를 수했다.

태고종은 7월 9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제23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구족계 수계산림은 오전 입재식 및 율장강의와 오후 구족계 수계법회 나눠 진행됐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구족계는 모든 계율이 완전히 구비된 것으로 수행자는 이를 토대로 온전히 열반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구족계 수지자들은 대신심을 일으키고 불도를 이루는 굳은 서원을 세워 깊이 마음을 성찰하고 수계에 임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오늘 수계법회를 통해 종단의 중진 승려이자 교역자로서 각자가 종단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찰불사와 수행정진에 각고의 노력을 더해달라"고 당부했다.

율장 강의는 '비니야장(毘奈耶藏)의 요체'를 주제로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대진 스님(대전 태고사)은 "계를 잃으면 수행자의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다"면서 "계율을 나침반으로 삼고 수행자로서 살아가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불이성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수계법회가 열렸다. 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 갈마아사리 혜일 스님, 교수아사리 시각 스님을 삼화상으로 재흥·능해·정운·구산·지허·휴완·청호 스님을 칠증사로 모시고 봉행됐다.

교수아사리 시각 스님은 구족계를 받지 못하는 법 13가지와 수계 가능한 법 16가지를 구족계 수계 대상자들에게 확인했으며, 호궤합장한 대상자들은 질문에 답하며 스스로 구족계를 수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후 연비의식과 몸과 마음을 맑힌 수계자들은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에게 전계를 받아 비구 250계·비구니 348계를 수지했다.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은 태고종 홍가사를 수한 53명의 비구·비구니스님들에게 종단 발전의 주역이 될 것을 당부했다. 수진 스님은 "오늘 구족계 수계자들은 태고종의 비구·비구니로서 종단의 '수청주(水淸珠)'가 돼야 한다"면서 "수행자로서 청정함을 지키며, 종단화합과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경륜·지혜로 직할교구 미래 이끌겠다"

김학규 제8대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



"직할교구신도회 조직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불교발전을 위해 삼보외호와 종단 핵심 사업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7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제3차 대의원총회에서 8대 회장에 선출된 김학규〈사진〉 도선사 신도회장이 신도회 활성화와 종단 핵심사업 동참 의지를 밝혔다.

김학규 회장은 '삼보외호'와 '불법홍포'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적극 동참해 왔다. 지난해부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최근에는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에도 출석 중이다. 김 회장은 "잘 배우고 익혀 사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명상 활동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구상도 함께 하고 싶다"면서 "이를 통해 신도조직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불자인구 감소화와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고민도 깊다. 김 회장은 "순례 프로그램과 세대별 포교 콘텐츠 개발 등 신도회 차원에서 사찰에서 행할 수 있는 전법 활동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임원과 회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자리이타(自利利他)'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김 회장은 "조직 강화를 위한 신도 관리뿐 아니라 자선골프대회, 자원봉사 등 사회 공동선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면서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직할교구신도회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지 어느덧 30년. 체육계에도 관심이 많아 전국시군체육회 협의회장과 대한체육회 이사도 역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108배와 사경을 통해 마음수행을 꾸준히 해온 덕분에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신행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불법을 전하며 노년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께 '해산(海山)'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김 회장은 "깊고 웅장한 바다와 높은 산의 기상을 배워 큰마음으로 불도를 닦으며 세상에 임하라는 뜻"이라면서 "법명에 걸맞은 태도로 임기 2년을 후회 없이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본말사주지인사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의견수렴

임기 중 사찰부동산관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스님은 6년 후에나 교구본사 주지로 임명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계종은 최근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찰부동산관리법 제9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면 징계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교구본사 주지로 임명될 수 없다.

조계종 총무부는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1조 임용 결격 사유 내용 중 관련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또는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 미승인 임대 및 처분 관련 조항을 선거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조항으로 본말사 주지 임용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과 종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제13조 임명적부 심사 관련 조항을 개정, 임명적부 심사를 위한 조회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 및 기관을 정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는 7월 21일까지며, 의견은 서면과 이메일(moon44@wehago.com), 팩스(02-720-3302)로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임은호기자

대원아카데미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출석 교육)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에 필요한 학점 취득 가능
학습과목
불교심리학(불교학 전공/3학점/목요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교양/3학점/금요일)
주 1일(목 · 금) 14:00~18:00, 15주
신청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수강료: 100,000원(과목당)

학점은행제 과목과 평생교육과정 동시 수강 가능
○불교심리학(학점)+명상지도사(평생교육과정) 수강료: 30만원
○정신건강과 참선명상(학점)+심리상담사(평생교육과정) 수강료: 30만원

◎ 평생교육과정
모집과정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출석 수업
(수) 13:00~17:00
(목 · 금) 13:00~18:00
수강료: 300,000원(학기당)

디지털대원아카데미(온라인 교육)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모집과정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온라인 수강
(수) 13:00~17:00
(목 · 금) 13:00~18:00
수강료: 200,000원(학기당)

○ 공통과목: 유식과 불교의 마음, 뇌 과학과 불교,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명상과 (생명)과학, 불교란 무엇인가, 서양에서 보는 불교, 명상심리학 등
○ 전공과목: 명상과 치유, 불교심리학, 상담심리학,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명상의 이해와 실습, 정신분석학, 불교수행과 심리치료, 인지심리학, 위빠사나 이론과 실습, 마음챙김의 이론과 실습, 상담심리학, 사마타 이론과 실제, 불교상담의 이론과 실습 등

○ 교수진
김홍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문학 박사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동서양심리학 박사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자아초월상담학전공 교수, 심리학 박사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불교학 박사
한자경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 철학 박사
효록 스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상담학과 초빙교수, 상담학 박사

○ 특전 및 혜택
성적 최우수 장학금: 수강료 100%
성적 우수 장학금: 수강료 50%
스님 등록 시, 본인 수강료 50% 할인
가족동반 등록 시, 1인 수강료 50% 할인
수료자 재등록 시, 수강료 50% 할인
2개 과정 동시등록 시, 1개 과정 50% 할인
민간자격(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취득자격 부여

○ 접수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대원아카데미: www.daewonacademy.org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digitaldaewon.org
접수 기간
평생교육과정: 2024년 9월 4일(수)까지
학점은행제: 2024년 9월 5일(목)까지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4년 9월 11일(수)까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BBS불교방송) 3층(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도보 50m)
문의: (02) 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kbpf.org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이 7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7월 11일 개막식 모습.

천년의 예술 미래로…2024 불교미술대전 개막

7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불교작가 27명 작품 48점 전시

올해로 5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성대한 시작을 알렸다.

'천년의 예술, 미래로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에서는 작가 27명의 작품 48점을 만나볼 수 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감지에 금니로 쓴 탑다라니작품 '반야심경'과 옻칠 작품 '연(蓮)'을 비롯해 원학 스님이 한지에 묵으로 작업한 '묵매(墨梅)', 정운 스님의 도자기 목탁 '수행의 길목에서', 유현정 작가의 '지장시왕도', 백용식 작가의 '감은사지 동탑 사리구 재현' 작품 등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예술인들이 정진과 협력을 통해 창작하는 불교예술은 현대의 불교문화이자 성보로 탄생했다"면서 "앞으로도 불교미술대전이 예술인들의 교류의 장으로, 작가의 기량이 발전되는 밑거름과 소통의 장으로 더욱 확장해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축사에서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이 돼 온 불교미술은 앞으로 미래세대에 전승해야 할 값진 유산이며, 불교미술 부흥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작가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무형유산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교미술대전이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이 돼, 천년을 이어 온 우리나라 불교미술이 앞으로 다가올 천년의 미래에도 그 맥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기획전은 7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임은호 기자

역대급 폭우에 사찰·불교유산 피해 속출

조계종 · 국가유산청 긴급 점검
세계유산 봉정사 내 석축 무너져
대조사 석조미륵상 사면 붕괴 등
충청 · 경상 사찰에 호우 피해 집중
국가유산청 "신속한 복구 나설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산사태가 발생한 부여 대조사에 7월 10일 방문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긴급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석축 붕괴로 피해를 입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 배면.

7월 9일 오후부터 7월 10일 오전까지 충청·호남·경북 지역에 내린 역대급 집중호우에 지역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이 7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호남·경북 지역 사찰에서 16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에 등재된 안동 봉정사는 호우로 인해 발생한 토사 유입으로 경내 극락전 배면에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 문화유산돌봄센터에서 출동해 잔해 처리 및 긴급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 대조사는 산사태로 인해 경내 명부전이 일부 파손되고 수각이 멸실되는 큰 입해를 입었다. 또한 국가지정유산 보물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불상 아래 쪽 사면이 붕괴되기도 했다.

부여 오덕사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사찰 진입로가 유실됐으며, 요사체 측면 수목들이 전도됐다. 현재는 잔해 처리 후 복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 쌍계사는 사방댐과 화장실 축대가 무너졌으며 명보전의 외벽이 갈라지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는 지역 문화유산돌봄센터에서 긴급 조치를 취한 상태다.

영천 거동사에는 경내로 토사가 유입돼 전각 일부가 침수됐으며, 죽림사는 산사태로 인해 산신간·나한전·공양간에 피해가 발생했다.

김천 직지사 북암은 경내에 토사가 유입됐으며, 김천 계림산은 수목 전도로 전각 처마가 파손됐다. 구미 대둔사와 영주 부석사, 경주 불국사 석굴암은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

전북 완주군 화암사는 보호구역 경계에 토사가 유출돼 진입로가 유실됐다. 현재는 잔해를 처리하고 접근 금지 조치를 한 상태이며, 향후 배수관 정비 및 복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익산 숭림사는 축대 붕괴와 수목 전도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홍성 청광사와 보은 법주사는 경내 진입로에 토사가 유입됐으나 현재는 복구를 마친 것으로 알렸다.

국가유산청은 중대본 2단계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각 지역 문화유산돌봄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위험물 제거, 우장막과 안전선 설치 등 피해확산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를 하고 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7월 10일 산사태 피해현장인 부여 대조사에 직접 긴급 현장점검을 나서기도 했다. 최응천 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역 문화유산돌봄센터 등의 경미보수 인력의 신속한 투입과 긴급보수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 장마전선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유산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살계연구회 결성…첫 학술대회 연다

7월 21일 해인사서 학술대회
'보살의 이상과 현실' 주제로
"계율 중심 연구 학회 발전"

보살계(菩薩戒)와 계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보살계연구회가 결성돼 첫 학술대회를 연다.

해인사 승가대학·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경남대 교양교육연구소는 7월 21일 오후 1시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보살의 이상과 현실- 인도에서 한국까지'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살계연구회 결성되며 시작됐다. 보살계연구회는 보살계를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의 연구모임으로 이상엽 서울대 교수와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연구회 회장은 이상엽 교수가 맡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의 기조법문으로 시작되며 2부 인도·중국불교의 보살계, 3부 한국불교의 보살계 이해로 나눠 대회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의 선(善)의 기준(지묘 스님, 일본 하나조노대) △금제(禁制)를 수행하기- 〈보살지〉에 나타난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의 특징(이상민, 고려대) △천태 지의의 〈입제법〉을 통해 본 성문계와 보살계(김보과, 동국대)가 발표된다.

3부에서는 △'진불수회계(瞋佛受悔戒)' 관련 〈범망경〉 주석 연구(유화정, 서울대) △대정신수대장경판본 〈범망경술기권제일(梵網經述記卷第一)〉(T2797)의 비판적 검토- 펠리오본 〈범망경술기〉(P.2286) 등과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박성일, 서울대) △성소수자에 있어서 출가와 수계의 문제(금강 스님,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가 각각 발표된다.

법장 스님은 "이번에는 보살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후로는 율장이나 청규 등으로까지 확대하여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 도반' 800명 늘었다

초록릴레이 '생명의 봄 피어라' 결과 발표

108명 단원이 모연 나서
환경보호 활동 적극 지원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가 회원 배가 운동을 실시, 54일 만에 800여 명의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다.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된 만큼 다양한 환경보호 운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불교환경연대는 7월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원 확대 초록릴레이 '생명의 봄 피어라'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생명의 봄 피어라' 초록릴레이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실태를 알리고, 환경보살로 함께 나아갈 인연을 모으자는 발원에서 비롯됐다. 올해 1월 '전국 활동가 워크숍'에서 신규회원 모집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고, 2월부터는 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3월, 추진단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은 108명의 모연단원이 위촉됐다. 각 단원은 4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신규회원 3명 모집을 목표로 모연에 나섰다. 모연단원의 노력으로 54일간 서울 350명, 광주·전남 268명, 울산 116명, 부산 30명, 전북 30명 등 총 794명의 신규회원이 가입했다. 애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한 셈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를 토대로 사찰의 환경보호 실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불자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에 주력한다. 특히 신규회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침체된 불교계 NGO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연대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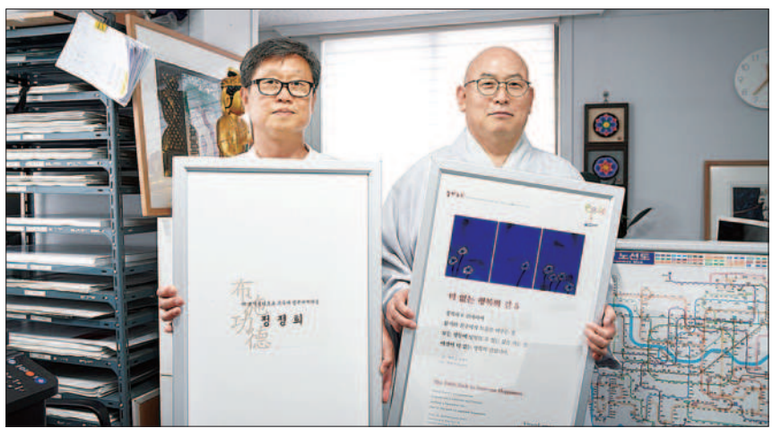
김내영 기자

부처님의 생애
붓다
The Buddha
"불교가 뭐지? 부처님은 또 누구시지?"
불자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부처님의 생애 『붓다』가 출간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Tel 02-2264-4714 Fax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

25돌 풍경소리, 지하철 게시판 포교 확대

코레일과 게시판 운영 재협약
창립 기념일인 9월 28일까지
경강선·분당선 등에 신규 설치
4000만원 목표로 모금 전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풍경소리 대표 목종 스님과 이용성 사무총장이 포교게시판을 소개하고 있다.

지하철 곳곳에 포교게시판을 설치해 부처님 법을 전해온 풍경소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603개 게시판 신규 설치를 목표로, 성금 모연에 나선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 목종 스님)는 7월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하철 포교게시판 운영 확대 소식과 노후게시판 교체 현황,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풍경소리는 올해 창립 25주년 기념일인 9월 28일까지 신규 포교게시판 600여 개를 설치한다. 그간 게시판이 부착되지 못했던 구간이 다수 있었는데, 6월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게시판 운영에 대한 재협약이 이뤄지면서 KTX 역사 등에 포교게시판을 확대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대표 목종 스님이 코레일 측과 3개월 간의 긴 협의 끝에 얻은 결과다.

재협약을 통한 추가 신설 구간은 경강선(판교-여주 11개 역), 분당선(왕십리-수원 15개 역), 수인선(수원-인천 19개 역), 동해선(부전-태화강 23개 역), KTX(39개 역)이다. 기존 부착 노선 내 신규 부착 역으로는 경의중앙선(야당-지평 21개 역), 경인선(남영-인천 20개 역), 일산선(2개 역), 과천안산선(5개 역), 경원선(외대앞-연천 12개 역), 경춘선(10개 역), 경부선(26개 역)이 있다. 이들 구간에 게시판 설치가 완료되면 전국 900여 개 역, 3000개 게시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글귀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노후 게시판 교체 불사'도 차질 없이 이어간다. 낡고 부서진 게시판이 늘어나면서 보수·보충 요구가 잇따르자 2022년부터 전국 지하철과 철도 게시판을 일제히 교체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00개 게시판 가운데 2200개 게시판을 교체했다. 나머지 200개 게시판 교체 작업도 9월 28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규 게시판 설치와 노후 게시판 교체 관련 재원이 오롯이 후원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이에 풍경소리는 목표금액을 4000만원으로 정하고, 모금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게시판 뒷면에는 후원자의 이름과 발원 내용을 함께 새겨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는다.

목종 스님은 "넉넉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2개월에 한 번씩 게시판 교체에 도움을 주는 전국의 자원봉사자 분들과 그림을 보시해 준 작가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지금의 풍경소리가 있을 수 있었다"며 "풍경소리의 안정적인 포교 활동을 위해 많은 동참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풍경소리는 창립 25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풍경소리의 글 모음집'을 전국 교도소와 군도서관에 보급하는 법보시 캠페인이다. 모음집은 1999년부터 게시판을 통해 전했던 부처님 가르침을 엮는 4권 분량의 책이다. 교정기관에 각 10세트, 군도서관에 5세트 이상 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보시는 1구좌 3만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 보시자에게는 1~4권 중 한 권을 랜덤으로 증정한다.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는 '풍경소리 창립 25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풍경소리의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고, 전법·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 의지를 다지는 도약의 장이 될 전망이다.

(풍경소리 : 1005-103-188374 우리은행, 02-736-5583)

나누며하나되기, 김영호 장관 통일 특강

7월 7일, 서울 관문사서
"평화통일에 입장 분명"



천태종 NGO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개문 스님, 천태종 사회부장)가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관문사에서 '제43대 김영호 통일부장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사회부장 개문 스님과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형동 국회의원(천태종 중앙신도회장), 김보경 관문사 신도회장 등이 함께했다.〈사진〉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관문사 1층에 마련된 남북교류 관련 사진전(개성 영통사 복원, 영통사 성지순례)을 둘러본 후 4층 옥불보전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특강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라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는 중이다.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북한이 결국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평화통일 관련 정책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로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의 여건도 마련돼 평화 합의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내영 기자

아름다운동행, 신사복지관서 '짜장공양'

7월 9일, 밑반찬 함께 나눔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이 7월 9일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짜장 소스와 짜장면을 나눴다.〈사진〉 올해 다섯 번째 진행한 '찾아가는 짜장공양' 사업의 일환이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집까지 배달해 주고 있다. 이날은 짜장 소스와 밑반찬을 함께 지원했으며, 점심시간에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밖에서 먹는 짜장면보다 더 담백하고 맛있다. 고맙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에서는 올해 12월까지 매월 2회 '찾아가는 짜장공양'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 외에도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하는 다양한 국내외 자비나눔 사업 후원은 홈페이지(www.dreaminus.org) 및 전화(02-737-9595)로 동참 가능하다. 김내영 기자



조계사 연꽃축제 개막

7월 6일, 500여 연꽃화분 경내 장엄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 도량에 연꽃으로 장엄된 연화장 세계가 펼쳐졌다.

조계사는 7월 6일 경내에서 '제10회 조계사 연꽃축제' 개막식을 봉행했다. '연꽃, 마음의 평안을 주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꽃축제는 올해로 10회차를 맞았다. 조계사 일주문 앞부터 앞마당까지 가득 찬 연꽃 화분은 500여 개. 불자는 물론, 시민과 외국인들은 도량을 가득 메운 연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판타지오, 제1회 드라마 극본 공모 시상

정희정 작가 '나쁘게 태어나서' 대상
수상작, 판타지오서 드라마 제작



동국대(총장 윤재웅)와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판타지오(대표이사 신영진)가 7월 8일 교내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1회 동국·판타지오 드라마 극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공모전에서는 정희정 작가의 '나쁘게 태어나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국대·판타지오 드라마 극본 공모전은 동국대 영상대학원·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과 ㈜판타지오가 협력해 문학·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수상작은 ㈜판타지오에서 드라마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며, 동국대는 드라마 극본 당선작의 2차 창작에 따른 수익 일부를 기부받기로 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로 기업의 이익을 대학에 환원하는 미래 지향형 선순환 기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격년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2026년에 다시 열릴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총 165명이 참가했으며 208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판타지오의 예심을 거쳐 30편의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어 동국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정희정 작가의 '나쁘게 태어나서'가 대상을, 박선욱 작가의 '미라클 모닝'이 우수상을 받았다.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과 20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공모전은 한국문학과 예술분야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과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류 문화를 보존하고 한국 문화 산업이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학교가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재 수습기자

난치병 어린이 돕기 자비 손길 이어져

7월 8일, 안동불교사암연합회 · 서울노인복지센터 전달식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 불자들과 복지시설에서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8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24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달식에서는 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과 부회장 범종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장 지웅 스님이 참석해 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에게 기금을 전달하며 난치병 어린이들의 원활한 치료를 응원했다.

묘장 스님은 "난치병 어린이 지원사업을 통해 24년 동안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복지재단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매년 연합회 차원에서 난치병 어린이 기금 모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8일 안동 범림사 5층 전탑 앞에서 '난치병 어린이 지원 모금 절 수행의 밤'을 개최, 연합회 소속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기금을 모연했다. 이날 1000만원을 전달한 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은 "안동사암연합회 스님들이 난치병 어린이 돕기로 자비정신을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매년 협조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4월 22일~5월 14일 '나눔해 보고싶어'를 주제로 어르신 모금단을 조직, 모연을 진행했다. 센터 직원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금한 971만원 중 10%인 97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센터장 지웅 스님은 "어르신들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의미를 되새길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배우 임혁, 불자대상 상금 전액 '쾌척'

선업 스님에 1000만원 전달



불기 2568년(2024) 불자대상을 수상한 불자 배우 임혁 씨가 상금 전액을 연예인전법단 발전을 발원하며 포교기금으로 쾌척했다. 임혁 배우는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전법후원단 연예인분과회장을 맡고 있다.

임혁 배우는 7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포교원장 선업 스님에게 포교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비롯해 연예인전법단장 우봉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고문 각운 스님(총무원 사업부장), 포교부장 남전 스님과 연예인전법단 소속 김국환·정동남·진미령·이현주·제임스킹 연예인, 이한규 연예인전법단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연예인전법단을 이끄는 회장님의 보시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회원들도 이 점을 마음에 새겨 전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혁 배우는 "불자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늘 응원과 격려해주는 전법단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전법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위앙종, 관음특별법회…'대비참법' 수행

7월 28일, 서울 탄허기념박물관서

위앙종이 7월 28일 서울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제4회 관음특별법회'를 개최한다. 특별법회에서는 천수경 성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사명대사의 대비참법(大悲懺法)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다.

대비참법의 본 명칭은 '천수천안대비참법'으로, 대승불교 대표 참회법 중 하나다. 이는 단순히 독송하는 형태가 아닌 불보살님께 꽃과 향을 올리고 절을 한 뒤, 여러 죄업을 읊으며 스스로의 잘못과 업을 진심으로 참회하는 수행법이다. 과거부터 지은 업에 의한 장애를 소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위앙종 관음법회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열리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참비는 무료다. 대비참법에 앞서 만트라 세션(능엄주·약사주)과 선명상의 기초를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선명상 기초'에서는 좌선에 유용한 택견 몸풀기 동작을 배울 수 있다. 문의 010-5212-3844. 김내영 기자

20돌 월정사 출가학교, '글로벌 명상 중심지'로 부상

美우든피쉬 7월 1~28일 출가학교 참가
22개국 80명 참여…6, 7일 삭발수계식
정념 스님 "세계인 품는 도량 되겠다"
영어로 프로그램 진행… 'K-불교' 홍포
참가자들 "내면 집중 계기될 것" 기대
미래세대 '국제 명상 교류' 토대 마련돼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 참가한 우든피쉬재단 청년들이 자신들이 받은 수계증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외국인 남행자를 삭발해주고 있다.


삭발의식 마친 행자들이 스스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월정사 사중스님이 외국인 여행자에게 연비의식을 하고 있다.

평창 월정사=신중일 기자

"Will you take refuge in the Three Jewels?"(그대는 삼보에 귀의하겠습니까?)

"Yes, I will!"(네 그렇습니다!)

7월 6일 월정사 문수선원에 모인 22개국 80여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삼보에 귀의할 것을 외쳤다. 월정사 출가학교 제67기로 입학한 이들은 무명초를 잘라내는 삭발식에 참여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와 (사)문수청소년회(이사장 해공 스님)가 미국 우든피쉬재단(이사장 이파 스님)과 함께 오는 7월 1~28일까지 4주간 '2024 월정사-우든피쉬 글로벌 명상수행 프로그램(Woodenfish Monastic Life Program with Woljeongsa)'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월정사 출가학교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우든피쉬재단의 청년 8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7월 1일 월정사에 도착해 오리엔테이션과 사찰 탐방 등을 진행했으며, 7월 6~7일 삭발 및 수계식을 갖고 단기출가학교에서 본격적인 출가생활에 들어갔다.

무명초 자르고 계를 받아 지니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회진언이 염송되고,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청수를 삭발 참여 행자들의 정수리에 뿌리면서 삭발의식은 시작됐다.

삭발의식 전 주지 정념 스님은 "출가 수행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삭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25일간 출가 수행자로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긴 세월을 살아오며 생각으로 입으로 몸으로 지은 번뇌의 업을 오늘 삭발을 통해 잘라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좋은 세계에 주인공으로 꿈만 꾸더니 무명초 무성한지 몇 해이던가. 오늘 금강보검으로 번쩍 깎아 버리니 끝없는 광명이 온 세계에 밝게 빛나네."

월정사 출가학교 학감 월엄 스님이 게송을 읊자, 삭발을 신청한 행자 30여 명이 일사분란하게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사중스님들에게 맡겼다. 스님들의 '금강보도'는 행자들의 오래된 번뇌를 담은 '무명초'들을 싹둑싹둑 잘라냈다.

"삭발해 큰 소원을 내오니 모든 생명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무명의 번뇌를 여의고 적멸에서 자유자재하소서. 부처님 앞에서 무명초를 잘랐으니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삭발하며 삼보(三寶)에 귀의한 행자들은 4주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출가사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이끈 우든피쉬재단 이사장 이파 스님은 참가자들의 삭발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파 스님은 "45년 전 나 자신도 대만에서 출가하며 삶의 대전환을 맞았다. 우든피쉬재단의 청년 회원들에게도 이 같은 변화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면서 "수려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음식이 있는 월정사가 내겐 집처럼 편안하다. 여러분도 삭발하며 삼보에 귀의했으니 월정사를 자신의 집처럼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7월 7일에는 참가자 전원이 연비의식을 통해 오계를 수지하며 불자로 거듭났다. 월정사 문수선원에서 진행된 수계식에서 전계사로 법상에 오른 주지 정념 스님은 행자들이 지켜야 할 삼귀의계와 오계를 영어로 설했다. 이내 정념 스님은 "Will you keep all them(삼귀의와 오계를 지키겠습니까)"라며 세 번에 걸쳐 물었고 모든 행자들은 "Yes, I will"이라고 우렁차게 답을 했다.

계를 수지한 행자들은 "삼귀의와 오계를 받은 공덕으로 삼악도와 팔난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불사를 성취하며, 이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베풀어 모두 보리심을 발하게 하겠다"고 발원했다.

삭발 · 수계,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

삭발과 수계를 통해 불자로 거듭난 참가자들은 월정사 단기출가의 경험이 자신에게 변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7년 전 불교를 공부하다 숭산 스님의 법을 접하고 현재는 홍대선원에서 스태프로 활동 중인 이색 경력을 가진 하난 울프선(30, 이스라엘) 씨는 삭발 및 수계식에서 동강(東康)을 받았다. 울프선 씨는 "삭발의식은 제 과거를 떠나보내고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왔다. 불교의 다르마 정신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앞으로 한 달여의 시간동안 불교 수행과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를 통해 나에게 제일 맞는 수행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동원(東願)'이라는 법명을 받은 버나드 베론스(28, 노르웨이) 씨는 "신경과학자로 활동 중인데, 목표 중 하나가 명상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며 "베트남과 일본의 선수행은 익힌 바가 있다. 한 달동안 월정사에 한국의 참선과 출가문화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교 지도교수의 소개로 우든피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토마스 윌킨스(21, 미국) 씨는 삭발·수계식을 통해 '동희(東熙)'라는 법명을 받고 불자가 됐다. 윌킨스 씨는 "보스톤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준비 중인데, 아시아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한국과 불교를 배우고 싶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프로그램 참가 당시, 나쁜 습관과 자기혐오가 심했는데 삭발과 수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달 뒤에는 긍정적 사고 갖고 주위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각(西覺)'이라는 법명을 받은 소피아 쿠티쉬체바(20, 러시아) 씨는 "인도에서 삭발하려 했는데 인연이 닿지는 못했다. 오늘 스님들께서 제 머리를 삭발해주셨는데 제가 가진 집착과 나쁜 습관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오늘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서강(西江)'이라는 법명을 받은 에밀리아 오초트니카(19, 체코) 씨는 "어렸을 때부터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신경 써 왔는데, 삭발하며 만감이 교차했다"면서 "앞으로 제 삶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길 예정이다. 대학을 진학하며 집에서 독립하는 등 새로운 삶이 펼쳐질 예정인데 그 전에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싶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제 내면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우드피쉬재단 회원 참가자들은 약 4주간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예정이다. 이들은 7월 6일 삭발식 이후 자신의 머리카락을 봉투에 담아 묻는 의식을 진행했으며, 7월 7일에는 적멸보궁을 참배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참선수행을 비롯해 전나무숲 3보1배, 강원도무형문화재 월정사탑돌이, 선재길 걷기명상, 상원사 탐방, 혜민 스님 특강 등도 진행된다. 4주간의 프로그램은 모두 영어로 이뤄지며, 마지막 1주는 집중 명상 수행 주간으로 진행된다.

월정사는 이번 글로벌 명상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산사문화에 기반한 K-불교명상의 보급과 미래세대 국제 명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협업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지 정념 스님은 "월정사 출가학교가 20주년을 맞았고, 세계 명상 축제를 진행하는 만큼 출가학교의 프로그램이 세계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미국 우든피쉬재단과 국제 교류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전 세계의 청년들이 한국의 출가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님은 "무엇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청년들이 명상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이런 세계적 흐름을 월정사와 한국불교가 배우고 체득해 우리의 수행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월정사는 한국 및 외국 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명상 축제 등을 통해 세계인의 명상 성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불편함과 아픔의 고통!
마이크로파로 통증 염증을 치유하세요~

극초단파
ARA-880 P



3분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불면증, 관절염, 목, 어깨, 허리, 무릎, 좌골신경통, 치질, 무좀, 습진, 하지정맥, 비염, 천식, 변비, 설사, 비만, 위염,기관지, 위경련, 족저근막염, 당뇨, 중풍, 고혈압, 신종플루, 등 통증완화

▶고출력 극초단파 (250W)로 열감과 지속성이 뛰어남
▶치료 부위에 따라 자유롭게 각도 조절이 가능
▶쉽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사용하기가 편리
▶제품의 경량화(30KG)로 이동하기 용이

상담문의 부성
T 010.3730.9413

염불전문 특수마이크 !
최신 디지털 유무선 염불전문 마이크 탄생!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항상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새벽별 보며 영역… '선요' 세계에 전하다

불전영어연구소, '선요' 영역본 출판기념법회

7월 9일 연구소 5층 강당서 봉행
원나라 고승 고봉 화상 법문집
英譯 불사 두 번째 결실 맺어
"한국불교 우수성 세계에 알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전영어연구소는 7월 9일 '선요 영역본'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책을 번역한 호법 스님이 불전에 봉정하는 모습.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자 문을 연 부산 영도 발원사(주지 호법 스님) 부설 불전영어연구소가 두 번째 영역(英譯) 불사 결실인 '고봉원묘화상선요 영역본'(이하 선요 영역본)을 부처님께 봉정했다.

불전영어연구소는 7월 9일 연구소 5층 강당에서 '선요 영역본'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 천불정사 회주 고담 스님,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 청도 대응사 현장 스님을 비롯한 승가 내빈과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외대 명예교수, 김용환 부산대 명예교수,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신도회 회장, 강용창 부산경찰불자 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선요〉는 원나라 고승 고봉 원묘 화상의 법문을 엮은 책으로 선(禪)의 요체 등이 잘 정리돼 있다. 고려시대 이후 한국 선종스님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교재로 활용됐고, 현재 승가대학에서도 필수적으로 배우고 있다.

발원사 주지 호법 스님은 "〈선요〉는 인류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위대한 경전을 한국사람들은 읽고 공부할 수 있지만 전 세계에는 아직 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새벽 2시 혹은 3시까지 3년에 걸쳐 번역을 했다. 이 결과물이 세계 모든 이가 누리고 선(禪)에 대한 깨달음의 선열(禪悅)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공동 번역한 로이 알록 꾸마르 교수는 "호법 스님의 연구에 경의를 표하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다"며 "호법 스님은 정말 엄격한 완벽주의자로 번역에 임했다. 경전 번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다. 영역불사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고 앞으로도 영역불사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법 스님은 책을 부처님과 승가에 봉정했으며, 이후 서평과 축사, 법문, 축가 등이 이어졌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은 법문을 통해 "호법 스님은 간화선이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주셨다. 장고의 노력으로 〈선요〉를 영문화하고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 준 호법 스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란다"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일심이 청정해야 세계가 맑고 청정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잘 사용해 두려움도 괴로움도 없으시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조사어록은 간화선의 정수이다.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실참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영어로 옮기기가 어렵다"며 "간화선은 인류와 종교의 문화적인 편견을 모두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문화이다. 선요를 영역해 더욱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불사는 매우 의미있는 성취"라고 말했다.

발원사 주지 호법 스님은 상좌부 불교와 소통하며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6년 11월 13일 '불전영어연구소'를 개원했다. 개원 후 2년 만에 대혜 종고 선사의 '서장'을 'A Manual of Zen'으로 번역해 선보였으며 영역해 출판했다. 이번 고봉 원묘 화상의 '선요'는 두 번째 결실이다.

부산불교계, 1천 불자 운집 수계법회 연다

조계종부산聯, 제7회 수계법회
8월 10일 부산항 컨벤션센터서


지난해 봉행된 조계종부산연합회 수계대법회 모습.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삼보에 귀의하고 지계실천을 다짐하는 신심의 장을 개최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8월 10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7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매년 불자에게 계의 실천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법석을 열고 있다. 장엄한 의식으로 신심을 고취하는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찾은 1000여 명의 불자가 자리를 메우고 거룩한 의식에 환희심을 드러낸다.

이번 '제7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전계대화상은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이며, 갈마아사리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교수아사리는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이 맡는다. 칠증사는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미타선원 원장 하림 스님, 관음사 선덕 도일 스님, 재단법인 동명불원 원장 원순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만초 스님,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 무진선원 주지 담화림 스님이 담당한다.

수계의식은 관정의식으로 진행한다. 관정의식을 위해 매년 연합회 스님들은 직접 기도 도량 및 수행처를 방문해 기도 후 맑은 물을 채수해 사용한다. 이번 해는 신라 시대 원효 스님의 오도성지로 알려진 평택 수도사에서 채수 의식을 진행했다. 연합회 스님들은 수도사와 서산 간월암, 서산 마애불에서 참배하며 불자들이 지계실천으로 더욱 성장해 행복을 성취하기를 기원했다.

특히 이번 법회에서는 회장 이취임 법회도 진행된다. 제4~5대 회장을 역임한 부산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을 이어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이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한편, 제7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전 신청은 사무국으로 하면 되며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회원 사찰은 각 사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계동참금은 3만원이며 복장은 상의 흰색, 하의는 편한 바지를 입으면 된다.

051-501-75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문인協 사단법인화 '새 출발'

7월 6일 임시총회 개최해
차정연 초대 이사장 취임



30년 동안 부산불교문학의 중심으로 활동한 부산불교문인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새롭게 출발을 알렸다.

(사)부산불교문인협회는 7월 6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임시총회 및 축제한마당을 봉행했다. (사)부산불교문인협회는 이날 사단법인 초대 이사장으로 차정연 회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행사에는 증명법사 혜총 대종사, 능지 스님, 차정연 (사)부산불교문인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증명법사인 혜총 대종사는 "그동안 부산불교문인협회 실상문학 초대 운영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부산불교문인들의 옥고(玉稿)가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했다. 2대 운영이사장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차정연 초대 법인 이사장이 함께 마음 모아 문학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문화 포교사 단체의 사표가 되길 바란다"며 격려사를 전했다.

차정연 초대 이사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면면이 불교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자산임을 깨닫고 부처님의 가피로 빛나는 문인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한편, (사)부산불교문인협회 전신인 부산불교문인협회는 1994년 원광 스님이 설립했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문학 발전에 기여한 문인들을 대상으로 실상문학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원각사, 제1회 숲속 영어캠프 개최

7월 28일 어린이 대상으로

부산 해운대 장산 대원각사(주지 안도 스님)가 어린이를 위한 숲속 영어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여름방학을 맞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대 과제인 '환경과 글로벌'을 주제로 진행한다. 캠프 일정은 7월 28일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2차는 8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캠프는 어린이를 위한 즐거운 체험학습을 비롯해 원어민 및 한인 영어 선생님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학습 위주가 아닌 체험과 경험으로 진행되며 대원각사에서 볼 수 있는 바다와 산, 차밭 등 자연과 함께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대상은 초등학생(7세부터 13세)이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참가비는 주지 안도 스님이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불교환경연대 환경보존활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010-2759-1315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용호복지관, 취약계층 어르신 삼계탕 후원

7월 9일 복지관서 후원 행사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이 7월 29일 복지관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초복맞이 '마음은 Hot! 몸은 Cool~한(寒) 초복 맞이 영양특식 DAY'를 개최했다.〈사진〉

KRX한국거래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등 약 300여 세대가 복지관을 찾았다. 이날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KRX한국거래소는 전복과 인삼이 들어간 영양삼계탕을 대접했으며, 국수, 미숫가루, 모듬떡, 과일, 음료 등으로 구성한 행복나눔꾸러미도 함께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 승복, 가방 50% 가구, 병풍 30% 할인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달력도 7월 10일부터 주문받습니다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2024년 동호불교 백중 물품 행사 품목
※ 택배비 포함,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2024년 7월 30일 물품 소진시 마감 예정

조상옷
쟈가드	100벌 이상	25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50,000원
추가옵션		
버선		300원
양말		30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메리야스	100개 이상	16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5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55,000원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홈초원백	20개	70,000원

식물성 양초 국산 최고급
7일초	20개	95,000원
5일초	24개	100,000원
3일초	40개	10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홈초원백	20개	80,000원
홈초돈타래	40개	80,000원

파라핀	1BOX	55,000원
지옷	200개(한박스)	140,000원
수자	100개	60,000원
동자동녀	100개	70,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소불7치 500불이상 1불당 12000원)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새마을금고 9003-2562-87257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정수사 '진노랑상사화' 사진 담아보세요

정수사 첫 사진콘테스트 개최
전문가 · 휴대폰 카메라 부문
오는 8월 15일까지 공모 진행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강화 정수사 인근에 군락지가 형성돼 있는 진노랑상사화. 환경부 멸종위기식물 2급 보호종이다.

강화 정수사의 명물 '진노랑상사화'를 카메라 렌즈에 담아보는 사진콘테스트가 처음으로 열린다.

강화 정수사(주지 무진 스님)는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수사 진노랑상사화 군락지에서 20일 간 '제1회 진노랑상사화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7월 9일 밝혔다.

강화 정수사의 명물인 '진노랑상사화'로 사찰로 올라가는 길 주변으로 약 500평 규모의 군락지가 형성돼 있다. 이 꽃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잎만 자라다가 초가을이 시작될 무렵 잎이 사라진 자리에 꽃을 피운다.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해 서로 그리워하는 서정이 담긴 상사화 중에 '진노랑상사화'는 강화도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으로 환경부 멸종위기식물 2급 법정 보호종으로 보호되고 있다.

사찰 내 뜨락 곳곳에 피어난 진노랑빛 상사화는 애절한 전설도 간직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한 처녀가 한 스님을 사모했다. 하지만 수행 중인 스님에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처녀는 상사병에 걸려 눈을 감고 말았다. 그 처녀가 죽고 나서 스님의 방문 앞에 꽃이 피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꽃은 잎이 진 다음 꽃이 피었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상사화는 만날 수 없는 숨바꼭질 같은 영겁의 애틋한 사랑,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꽃이다.

정수사 주지 무진 스님은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꽃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상사화의 원초 뿌리는 하나이고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꽃과 꽃잎이 못 만나도 뿌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1300년, 새로운 역사를 잇다'를 주제로, '어찌 이리도 이쁠까'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콘테스트는 전문가 부문과 휴대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 작품을 강화도 정수사 홈페이지에 진노랑상사화 개인 1작품과 정수사 풍경 1작품 총 2작품씩 업로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강화 정수사는 사진콘테스트 참여자를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함허동천 공영주차장에서 정수사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주말에는 마니산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정수사까지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무진 스님은 "사진콘테스트 부제 '어찌 이리도 이쁠까'처럼 잠시 시간을 내어 국민이 진노랑상사화를 보고 대자연 속에서 공감과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함허동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사찰의 문화적 역할과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효과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사진콘테스트 수상작 발표는 9월 9일 정수사 홈페이지와 불교계 언론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전문가 부문 총무원장상 1명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중앙종회의장상·포교원장상·교육원장상·회주스님상 각 1인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휴대폰 카메라 부문 회주스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장이, 주지스님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장이, BBS불교방송사장상 1명에게는 상금 30만원과 상장이 전달된다.

한편, 강화 정수사는 8월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함허동천 마을 사람들과 여름 휴가객이 함께하는 '개최식 및 함허동천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화엄사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김주연 '소리와 공간' 스튜디오 대표가 음악감독을 맡은 정수사 작은 음악회에는 테너 박성근, 재즈 보컬 백효은, 하모니카 연주자 이병란, 피아니스트 안예현, 바이올리니스트 송태진·이연준 등이 참여해 멋진 화음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종사 유훈 기리며 수행 정진하겠다"

법륜종 종정 정각 대종사 영결 · 다비식 엄수

7월 8일 보현정사서 종단장
지역 포교 · 복지 발전에 헌신


다비식은 보현정사 주차장에 마련된 다비장에서 봉행됐다.

평생을 지역 포교 발전과 사회복지 활동에 헌신한 한국불교법륜종 종정 영산당 정각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7월 8일 목포 보현정사(주지 도안 스님) 대웅전 앞마당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법륜종 총무원장 성진 스님은 "노구를 이끌고 원행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종단의 화합이라면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으셨던 큰스님이 그립다"고 회고했다. 성진 스님은 "실천불교의 자비보살인 화신불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셨으니 어느 때 인연되어 다시 오실런지요. 큰스님의 그늘을 늘 그리워하며 종도와 함께 탁마하고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추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 스님이 대독한 조사에서 "정각 대종사께서는 평소 지역 포교와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후원과 청소년을 위한 기부와 나눔을 몸소 실천하셨다"며 "사부대중은 구도자로서 보여주신 스님의 모습과 덕화를 가슴속 깊이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다"라고 추모했다.

영결식이 끝난 후 법체는 인로왕번, 명정, 삼신불번, 오방불번, 십이불번, 위패, 영정, 법주를 선두로 다비장으로 운구됐다. 운구된 법체는 보현정사 주차장에 마련된 다비장에 이운돼 장작 속에 안장되었다. 이어 대중의 외침과 함께 거화가 진행되고, 60 평생 수행자로 걸어오신 이승과의 인연을 다했다.

한편 정각 스님은 7월 4일 목포 보현정사에서 법랍 62년 세납 87세로 원적에 들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향림사, 천운당 상원 대종사 부도탑비 제막

7월 7일, 300여 명 동참
불교 포교사에 족적 남겨



호남지역 불교 포교의 큰 어른이었던 천운당 상원 대종사(1932~2010)의 부도탑비 제막식과 제14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사진〉

광주 향림사(주지 상범 스님)는 7월 7일 경내 천운당 상원대종사 부도탑 전에서 대흥사 조실 보선 대종사,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암도 대종사, 향림사 회주 혜향 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월우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을 비롯한 대흥사 문도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 소운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부도탑비 제막식과 제14주기 추모다례재를 진행했다.

보선 대종사는 "향림사 회주 혜향 스님, 주지 상범 스님이 훌륭한 부도탑비를 조성해 주셔서 감사하다. 비문을 써 주신 최성렬 교수에게도 감사하다"며 "스님께서 열반에 즈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 자신을 속이는 중노릇을 하지 말아라'고 하셨다. 오늘을 계기로 수행자로서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 불국정토를 이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지 상범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부도탑과 부도비는 향림사 신도들의 동참금과 혜향 스님을 비롯한 향림사 대중의 정성으로 조성됐다. 비문은 조선대 최성렬 명예교수가 지었고, 조각은 오채현 석장이 오석에 제작했다. 부도는 총 높이 3m에 연화좌대로 부조를 조각하고, 부도비는 총 4m의 높이에 귀부 위에 중앙비신 2.1m로 조성됐다.

한편 천운당 상원 대종사는 한국전쟁 당시 군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한국불교 포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2010년 4월 14일 법랍 64세, 세수 79세의 일기로 광주 향림사에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덕숭총림 수덕사 반결제 산행… 승보공양법회도

7월 4일 백제의 미소길 순례
200여 스님, 신도 800명 동참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7월 4일 하안거 반결제일을 맞아 가야산 가야사지에서 '갑진년 하안거 반결제 산행 및 우란분절 승보공양'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증명으로 수덕사와 정혜사, 개심사, 향천사, 견성암, 보덕사, 법계사 및 율원과 강원에서 안거 중인 200여 수행자와 신도 등 800여 명이 동참했다.

우송 대종사는 "반철산행, 승보공양법회는 보살행"이라면서 "성불하려면 보시해라"는 법어를 남겼다. 동참 대중은 스님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대중공양비를 전달하며 존경을 표했다.

도신 스님은 "덕숭총림은 근대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만공 스님과 조선시대 무학, 고려시대 태고 보우 스님 등이 정진했던 도량"이라며 "수많은 선사가 계셨음에도 '원효 깨달음의 길'로 제한된 것에 한계를 느껴 108.6km의 이 길을 '내포불교순례길'로 명명, 한국의 대표적 불교 순례길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승보공양 법회 후 대중은 가야사지를 출발해 잣나무길과 퉁퉁고개, 휴양림을 거쳐 보원사까지 총 7km 구간을 걸으며 가야산의 보존을 서원했다.

한편, 수덕사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내포불교문화의 중심인 가야산 일대를 지키기 위해 2007년부터 반결제 산행을 하고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나주 다보사 주지 만민 스님 취임

7월 6일, 취임 · 천일 기도 입재



전남 나주를 대표하는 사찰 조계종 다보사의 새로운 주지로 만민 스님(전 백양사 강사·사진)이 취임했다.

나주 다보사(주지 만민 스님)는 7월 6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주지 취임 및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만민 스님은 취임사에서 "백양사에서는 저를 보면 방구석에서 책만 보는 스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곳 다보사로 오면서 한 달 동안 쓸고 닦으며 청소를 했다. 앞으로도 다보사와 많은 대중을 위해 쓸고 닦으면서 절이 빛날 때까지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상에 오른 성오 스님은 법문을 통해 "주지 취임을 축하한다. 다보사는 법화경에 나오는 다보여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다보여래는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서 늘 증명을 하시는 분이다"라며 "다보사에서 역대 큰스님들이 수행하셨던 그 모습이 만민 스님을 통해 다시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문에 앞서 교구본사인 백양사를 대표해 만당 스님은 "만민 스님은 백양사의 대강백이자 율주인 혜권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아 포교활동을 진력해 오셨다"며 "다보사는 많는 지정문화재와 앞으로 지정해야 할 문화재가 많다. 과거의 전통을 이으면서 새롭게 일신해, 그동안 침체된 다보사를 나주시와 협의해 나주를 대표하는 도량으로 만들어달라"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름밤 지리산 화엄사를 만끽하세요"

화엄사, 화야몽 프로그램 개최

여름밤 지리산 화엄사를 만끽할 수 있는 화야몽(華夜夢)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된다. 화엄사는 총 4차에 걸쳐 '2024 여름밤, 나, 그리고 가족'을 주제로 화야몽을 진행한다.

2024년 여름 화엄사 경내 야간 개장과 함께하는 화야몽 초청 프로그램은 신세대 젊은 가족 초청 프로그램(1차-7월 20일), 부부, 여인 초청 프로그램(2차-7월 27일), 자유 신청 초청 프로그램(3차-8월 10일), 부모님 모시고 함께하는 프로그램(4차-8월 24일)이 준비돼 있다.

화엄사는 이번 여름 야간 경내를 20시부터~24시까지 산문과 경내를 개방한다.

주지 덕문 스님은 "화야몽을 통해 여름밤 산사의 고요함, 스님들과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별빛, 은하수를 맘껏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화야몽 프로그램에는 화엄사의 대표적 MZ세대로 불리는 연성 스님(1차), 법문 스님(2차), 범정 스님(3차), 연우 스님(4차)이 지도법사로 나서 참가자들과의 이야기 꽃을 피운다.

화야몽 참가신청은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20명을 신청 가능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흥원, 제2회 대원청년회 워크숍 개최

전국 21개 대학 50명 참가해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7월 7일부터 9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제2회 대원청년회 워크숍 '나를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Ⅱ'를 개최했다.〈사진〉 워크숍에는 전국 21개 대학의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수상자 50명이 참가했다.

워크숍은 △이한구 진흥원 이사장(경희대 석좌교수)의 '나는 누구인가' 특강 △신진욱 진흥원 사무국장(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의 '마음챙김 명상,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해와 실습 △부산 보디야나선원장 혜안 스님의 '붓다의 명상을 배우다' 강의 및 실습 △양희연 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내 몸을 알면 내가 보인다' 요가 실습으로 진행됐다.

불국사 걷기 명상 프로그램과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천년고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신평천 흙길을 걸으며 경주의 자연을 느껴보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김민재 수습기자

청주BBS, 제12회 종교화합 무심음악제

7월 6일 청주 예술의전당서



청주 불교방송(사장 도암 스님)은 7월 6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2회 종교화합 무심음악제'를 개최했다.〈사진〉

통합 청주시 출범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음악제에는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이수한 신부(청주 분평동 성당 주임신부), 김태종 목사(충북사회문제연구소 희망언덕대표), 김영환 충북도지사 및 지역 단체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주 불교방송 사장 도암 스님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모여 소리를 만들어 가는 자리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것은 '다름과 존중'에 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지역사회를 화합하는 하모니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악제에서는 천주교 '최양업 토마스 앙상블'이 'Ubi Caritas'를, 개신교 '최콰이어 혼성합창단'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선보였다. 불교는 '보문정사 해조음 합창단'이 '비천'과 '석가모니불'을 공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티베트 불교 발전, 졸업생에 달렸다”

티베트 자치구 서장불학원 졸업식…320명 졸업

2011년 설립, 1580명 배출
전통 · 현대 결합 특별 교육
비구니 석사학위 최초 수여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 6월 30일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에 소재한 전문 불교대학인 서장불학원(西藏佛学院)이 2024년도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을 봉행했다. 올해엔 320명의 비구·비구니스님들이 졸업했다. 7월 1일, 중국의 ‘신화망’ ‘중국서장망’ 등 현지언론들은 서장불학원 졸업생들의 포부와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2011년에 설립된 서장불학원은 현대적인 교육체계에 전통적인 강원 교수법을 결합한 티베트 지치구 최초의 고급 티베트 불교 종합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는 필수적인 교학과정 외에도 역사, 외국어, 법률, 컴퓨터 등의 새로운 교육과정도 포함돼 있다. 학생들은 티베트 불교의 5개 주요 종단에서 심사를 거쳐 선택된 출가자들로 현재 900여 명의 학인스님들이 등록돼있다. 지금까지 이곳을 졸업한 스님들은 1580명으로 이 중 60명은 다양한 종단에서 환생자로 밝혀진 스님들이다.


졸업식에서 전통적인 경전 토론 ‘담짜’를 선보이는 졸업생들. 사진출처=중국서장망

이날 졸업식에서는 9명의 환생자들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다. 행사 당일 환생자스님들은 졸업식장에서 전통적인 티베트 불교 토론인 ‘담짜’를 선보였다. 특히 수석으로 졸업한 아왕 롭상 샹박둡 린포체는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특수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후에 불교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는 처음으로 비구니스님들에게 석사학위에 해당되는 ‘치람빠’ 학위가 수여됐다. 비구니 교과는 2014년에 처음 설립됐으며 역시 불교 교학과 현대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된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석사학위를 받은 비구니 스님들은 29명으로 지난 6월 20일 진행된 교학논술고사와 논문발표 시험을 치렀다.

수석으로 꼽힌 텐진초모 스님은 “서장불학원에 지원한 후 6년 동안 교학을 연찬하며 심도 있는 불교철학의 지식을 습득했다”면서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보다 논리적인 사고와 작문실력이 많이 향상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부처님이 사부(士夫)를 헤아리는 능립의 근거〉라는 제목의 졸업논문을 티베트어로 작성하여 발표했다.

서장불학원의 두캉 툽텐캐둡 원장은 졸업식 축사에서 “새로운 세대의 비구·비구니스님들이 이제 훌륭하고 현대적인 환경에서 티베트 불교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이는 이전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면서 “티베트 불교의 발전은 졸업생들에게 달려 있으며, 학교를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불법을 연구하고 동시에 인류문명의 모든 성과와 현대 과학과 문화적인 지식을 배워 시야와 정신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캐나다 윈저 최초 불교 사원 개원

주택 지하서 열린 임시 법회서
불자 주도로 모연 불사 추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 있는 캄보디아 불교 사원 전경. 사진출처=CBC

지난 7월 1일 캐나다의 ‘CBC 뉴스’는 캐나다 캄보디아 불교 사원 개원 소식을 전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캄보디아 불교 사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캄보디아 불교 사원의 론 심(Ron Sim) 이사는 법회를 봉행할 정식 사원이 없어 거주 중인 주택 지하실에서 모여 작은 법회를 봉행해던 때를 회상하며 “300여 명의 불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불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감회가 새롭다. 오늘은 캄보디아계 캐나다인의 다음 세대가 지역 사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축사를 전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팀 소(Tim So) 불자는 “캄보디아 불교 사원은 국적, 나이, 성별, 종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면서 “부처님의 법음이 널리 퍼질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불교 사원은 1970년대 크메르루즈 집권기에 발생한 참혹한 학살과 만행을 피해 캐나다로 이주한 캄보디아인이 주택 지하실에서 법회를 봉행한게 시작이었다. 인근 불자가 삼삼오오 모이자, 법회는 점점 커졌다. 협소한 지하실을 대신해 불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기도 했다. 불자들의 모연을 바탕으로 사원 건물 입찰에 성공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무료 3D뷰어로 불상 관찰

사진으로 호상 측정…절단면 표시


3D뷰어를 개발한 야마다 오사무 교수.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웹상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의 3D 이미지를 이용해 자세한 사이즈를 측정하거나 절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무료 3D 아카이브 ‘나라 메모리’ 공개돼 화제다. 지난 7월 6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야마다 오사무 나라 현립대 교수가 개발한 3D 뷰어와 웹사이트에 대해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3D 데이터는 연구기관이 작성, 업로드하고 있으나, 상세한 3D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유료로 구독하거나 연구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에겐 이용법이 한정되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

야마다 교수는 2022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접적인 실측 조사와 연구가 어려운 점과 대중적으로 3D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점에서 착안,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없이 아카이빙 홈페이지(naramemory.jp)에 접속하는 것만을 사용 수 있는 3D뷰어를 개발했다.

야마다 교수는 3D계측을 이용한 불상 등의 문화재 수리의 전문가로 국내외 문화재의 디지털 데이터화에도 종사해 왔다. 이 경험을 살려 이번에 개발한 뷰어에서는 사진에서 가져온 불상 이미지의 상호나 세부표현의 크기 등을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한편, 어느 평면에서 자른 때의 단면을 원하는 방향에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원근감이 있는 투시도법과 설계도에 사용되는 정투영법 형식으로도 표시를 전환할 수 있어 문화재 수리시의 설계도를 만드는데도 용이하게 만들어졌다.

현재 샘플로서 국보를 포함한 불상이나 토우 등 13종류의 문화재 3D 데이터를 게시하고 있다. 야마다 교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외에도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직접 만질 수 없는 문화재들을 3D스캐닝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입체적의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불교 성지 순례 비밀회의 ‘보디 야트라’ 개최

6대 불교 성지 품은 우타르프라데시주 관광 활성화 목표

지난 6월 29일 인도 영자신문 ‘더 스테이츠맨’은 뉴델리에 부처님 깨달음의 자취를 돌아보는 성지순례 관련 비밀회의 ‘보디 야트라’를 개최 소식을 전했다. 비밀회의에는 불교 성지 순례지로서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중요성과 관광 잠재력을 강조했다.

보디 야트라에는 인도 관광부 장관, 우타르프라데시주 관광문화부 장관, 연합관광부 장관 및 인근 국가 대사 등 주요 관계자와 국제불교평의회 회원, 학계 인사, 국내외 기관 대표, 관료, 여행작가, 블로거 등도 참석했으며 인도의 강력한 국제적 유대관계를 보여줬다.

보디 야트라 참석자들은 부처님의 탄생부터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삶을 묘사한 공연을 감상하고 불교 기초교리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풍부한 연관성을 기념했다. 또한 불교 성지 순례가 국내외 방문객 모두가 좋아하는 여행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디 야드라는 우타르프라데시주 관광부 에샤 프리야 특별장관의 발표로 시작했다. 그는 “풍부한 종교적 다양성과 역사를 가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는 6대 불교 성지인 산카샤, 사르나트, 슈라바스티, 룸비니, 코삼비, 쿠시나가르가 있다”면서 “부처님의 삶과 깨달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순례자에게 화두를 던지는 장소로 매년 성지 순례를 위해 수많은 불자가 방문하는 인도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길 바란다”면서 “현재 부탄 투자로 바라나시에 8000㎡(2420여 평)규모의 사원과 게스트하우스를 건설 중이다. 모든 국가에 6대 불교 성지 관광 부문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 협약 체결 시 불교 성지 관광 개발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투자 친화 관광 정책을 설명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자이비르 싱 문화관광부 비서가 가젠드라 싱 셰카왓 인도 관광부 장관에게 ‘보디 야트라’의 시작을 기념하여 불상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출처=더 스테이츠맨

가젠드라 싱 셰카왓 인도 관광부 장관은 “인도는 ‘부처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부처님은 전 세계에 진리, 비폭력, 친절과 자비의 메시지를 주었고 우타르프라데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현재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개발 정책 중 첫 번째는 불교 성지”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보디 야트라’를 개최한 우타르프라데시주 관계자에 감사를 표한 장관은 “불교 순례자들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과 더 나은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국가 관광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두르가 샹커 미슈라 우타르프라데시주 수석 비서관은 “우타르프라데시는 불교의 요람이며 보디 야트라는 관광 부처 관계자들이 부처님의 적정(寂靜)과 불성(佛性)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주정부와 관광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관광시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논문 게재료 안 받겠습니다”…자현 스님의 이유 있는 시도

한국불교학회 제26대 집행부 사업계획 발표

논문 게재료 완전 면제 추진
신진학자 논문 심사료 환급
‘응용불교학’으로 외연 확대
“존엄사 등 세미나 주제 구상
불교학 진입 장벽 낮추겠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학회는 올해부터 학회지 논문 게재료 완전 면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국불교학회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한 자현 스님〈사진〉이 7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향후 학회 사업 계획 중 일부다. 이날 자현 스님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학회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신진학자들의 논문 게재료 면제 등을 통해 불교학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자현 스님은 올해 사업 계획으로 △논문 게재료 완전 면제 △신진학자 심사료 지원 △학회 연회비 하향 △응용불교 영역 확대 △편집위원장 권한 독립 △논문심사 배점 기준 재조정 △재정 투명화 확립 △불교 학술 행사 안내 연동 △무료 논문 다운로드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논문 게재료 완전 면제를 1번 사업으로 내세운 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 불교계 학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회지 게재 논문에 대해 소정의 게재료를 받고 있다. 투고된 원고 매수가 학회 규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분량만큼 게재료를 추가로 지불하기도 한다. 일부 학회에서는 일반 투고 논문들에게는 게재료를 받지 않지만, 사사(연구비 지원)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받는다.

신진학자들은 꾸준히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자신의 연구 성과를 알릴 필요가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학회지 논문 게재료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자현 스님은 “신진학자와 불교학 활성화를 위해 한국불교학회는 불교계 최초로 학회지 논문 게재료를 면제하려 한다. 분량이 많은 논문에 초과 게재료도 부과하지 않겠다. 연구비 지원 논문이나 전임 교수의 논문도 게재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문 게재료를 받지 않을 경우 연간 700~1000만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학회 내 발전기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전임교원 등 형편이 괜찮으신 선배 학자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후학들이 혜택을 받아 성장하는 것이 선순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현 스님은 학회에 매년 2000만원의 발전 기금을 후원할 계획이다.

학회의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자현 스님이 “논문 게재료를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이유는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불교학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연을 넓히는 것이다. 생애



처음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신진학자에게 심사비 9만원을 환급하는 것도, 연 10만원의 학회 연회비를 5만원으로 낮추려는 것도, 학회지에 응용불교학 영역을 별도로 배정해 논문을 투고토록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현 스님은 “사실 학회들이 형편이 어려워 학회비를 상향한 경우가 많다. 열심히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들이야 이 회비가 부담되는 돈은 아니지만, 2~3년에 한 번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에게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면서 “회원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학회 진입을 낮춰 불교학의 외연을 넓히려 한다”고 밝혔다.

자현 스님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춘·추계 학술대회, 워크숍의 주제와 발표 방식에도 변화를 줄 방침이다. 추구하는 기조는 소위 ‘알뜰신잡’식 코드에 가깝다. “포털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 보편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의 중간에 있는 영역”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학술행사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현 스님은 현재 구상 중인 학술행사 주제로 존엄사, 낙태, 인공지능 윤리 등을 제시했다.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불거진 존엄사나 낙태, 생명 복제 등의 문제들에서 기독교 등 다른 종교들은 매우 불리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 결정으로 이뤄지는 불교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면서 “현대에 불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을 학회에서 이야기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 학술행사에서는 발표문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PPT로 발표해 청중들이 몰입감을 갖고 경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한 연구 내용은 학회지 논문으로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자현 스님은 학회의 재정 투명화를 위해 상근 직원을 채용해 매달 입출금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며, 법인 감사 중 1인을 외부 전문가로 둬 감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불교학회 홈페이지에 모든 불교 학술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무료 논문 다운로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자현 스님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 ‘우리는 벤츠와 포르쉐를 타고 있지만, 후대는 낙타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했다. 부국(富國)인 사우디아라비아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한국불교학계도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현재 추진하려는 것은 불교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실험적 시도들”이라면서 “불교학을 공부한 연구자들을 학계로 흡수시키면서 공부의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학들이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앞서 간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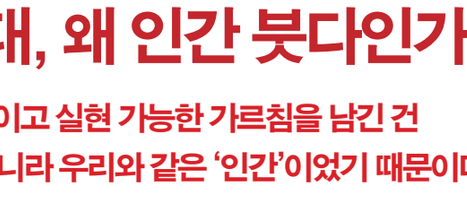
사찰이 직장이라면… 결국엔 ‘사바세계’

영화 ‘더 납작 엎드릴게요’
7월 10일 전국 극장 개봉
‘사찰 오피스 드라마’ 그려

사찰에 가보면 스님만큼 혹은 스님보다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재가 종무원들이다. 이들은 사찰의 행정부터 법회나 행사 준비, 공양, 여러 부대사업들까지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처럼 고즈넉한 사찰을 직장으로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떨까. 뭔가 세속의 직장인과는 다른 사유와 힐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찰 좀 다녀봤다면 한 번쯤 상상해봤을 사찰에서의 직장생활이 영화화됐다. 김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더 납작 엎드릴게요〉는 사찰 법당 옆 출판사 직원들의 ‘보살 라이프’를 그린 본격 ‘사찰 오피스 드라마’다.

입사 5년 차, 그러나 막내도 5년 차인 ‘혜인’(김연교 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귀여운 재치로 담아냈다. 막내의 길을 걷고



영화 〈더 납작 엎드릴게요〉의 한 장면.

있는 ‘혜인’은 나름대로 슬기롭게 직장 생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불교 서적 출판사라고 해서 신도 고객들이 모두 ‘보살’들은 아니다. “내가 낸 기도비로 월급 타 먹는 주제”라고 운운하는 보살들을 보면 진짜 불자가 맞나 싶을 정도다.

주인공이 진상 신도의 무례한 요구에도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속적 이유와 맞닿는다. 바로 ‘돈’ 때문이다. 대출금과 카드 요금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방하착’을 하게 되는 순간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경험이다. ‘산(宗)’을 관조하며 여행하는 것과 ‘산(宗)’에서 생존해야 하는 삶은 분명 다르다. 그렇기에 사찰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그 공간이 ‘오피스’가 되는 순간, ‘성소(聖所)’일지라도 생존의 공간이자 인욕의 공간이 된다.

그렇다고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는 납작 엎드려야 하는 상황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인의 최대 고민인 ‘메뉴 고르기’ ‘퇴근 후 일상’ 등 소소하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도 영화 곳곳에 담겼다.

결국, 사찰이든 사회든 우리는 ‘사바세계(娑婆世界)’에서 살아간다. ‘사바’는 인도말로 ‘감인(堪忍)’으로 번역된다. ‘견디고 참으라’는 의미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버티며 산다.

한편, 〈더 납작 엎드릴게요〉는 영화 제작 전, 이미 동명의 에세이로 팬덤이 형성됐고, 영화 제작 후에는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영화팬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진 작품이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 상영됐으며, 지난해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꽃 든 조선代 보살상, 튤립의 나라 찾다

국립중앙박물관 목조관음보살상
네덜란드국립博에 2년 간 전시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네덜란드국립박물관은 ‘라익스박물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렘브란트, 페르메이르, 반 고흐 등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유한 네덜란드 회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유럽 최고의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 전시 공간은 상대적으로 소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곳에 조선시대 관음보살상이 교류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올해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2년 간 네덜란드국립박물관(Stichting Het Rijksmuseum) 아시아관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인 ‘목조관음보살상’을 특별 전시한다. 이번 특별공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외 한국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네덜란드국립박물관이 암스테르담으로 본격 초대한 목조관음보살상은 18세기 전반에



네덜란드국립박물관에 전시된 목조관음보살상.

조성됐다. 관음상을 조성한 불모(佛母)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표정 등 표현 방식을 통해 조각승 진열(進悅)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승려 장인이 정성을 다해 조각한 ‘꽃을 든 관음보살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떠나 앞으로 2년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인을 만나는 여정을 시작한다”면서 “17세기 조선의 생활상을 유럽에 처음 소개했던 하멜의 나라이기도 한 이곳 네덜란드에서 조선의 불상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중요한 문화 사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지금 이 시대, 왜 인간 붓다인가?
붓다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가르침을 남긴 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경전 속 붓다의 삶은 신비로운 만능의 존재가 아닌, 우리처럼 괴로움과 고군분투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붓다의 인간적인 면모는 현대인들이 삶의 길을 찾는 데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금 ‘인간 붓다’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화와 설화를 걷어낸
율장 속 붓다의 참모습
인간 붓다
이중표 역해
248쪽
23,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순수한 아이들의 놀이처럼
일상을 놀이하듯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술이 된다!

따분한 일상에 창조적 숨결을 불어 넣는 ‘놀이의 힘’

추천의 말
“실제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 봐야 할 책.”
– 로버트 M. 피어시그(《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의 저자)

독자 리뷰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선물했다.”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든 상관없이, 이 책이 당신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넓게 보면 이 책은 삶에 관한 이야기다. 삶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
상상을 현실로 이뤄 주는
타고난 창조적 힘에 관하여
스티븐 나흐마노비치 지음
권혜림 옮김
280쪽
18,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0~7/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늘바라는대로이루고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봉암사동안거일기	산강 대혜 스님	불교신문사
2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7	일상에서의호흡명상숨(빨리어호흡관법경강의)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4	금강경강화(문예신서276)	김월운강술	동문선	9	언어진실을전달하는가왜곡하는가(밝은사람들총서18)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5	불교와의만남	강건기 지음	불일출판사	10	사찰문화해설가이드북	강계 이지범	중도

책세상

두 선지식이 전한 '선가의 祕書'



격절록 역주
원오극근 지음
강승욱 번역
운주사
3만5000원

설두중현의 100칙 염고에 탄복한
극근 선사 한 철 안거 법문 기록
"후학들 위한 언어도단의 지침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원오 극근(圓悟克勤, 1063~1135) 선사는 중국 송나라 임제종 양기파 스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제48대 조사스님으로 한국 불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원오 극근 선사는 최고의 참선 교과서라고 알려진 〈벽암록〉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로 알려진 〈벽암록〉은 〈종용록〉 〈무문관〉과 더불어 3대 선어록(碧巖錄)이다. 〈벽암록〉은 중국 선종 5가 일파인 운문종의 설두 중현(雪竇重顯, 980~1052)이 〈경덕전등록〉 1700칙(則)공연 중 학인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는 100칙을 선별해 송(頌)한 것을, 후대 원오 극근 선사가 각 칙마다 수시(垂示, 서언)·착어(著語, 짧은 비평)·평창(評唱, 해석)한 것을 첨부한 것이다.

하지만, 〈벽암록〉 이외에도 설두 중현의 〈설두염고(雪竇拈古)〉을 원오 극근 선사가 무릎을 치며 탄복하고 칭찬해(擊節嘆賞) 쓴 책이 한 권이 더 있는데 그것이 〈격절록(擊節錄)〉이다. 선종(禪宗)의 두 종장, 설두 중현과 원오 극근의 언어도단, 촌철살인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맛볼 수 〈격절록〉 역주본이 처음 발간됐다.

역자는 덕우 강승욱 법사로 남산 정일 선사를 은사로 불법에 귀의해 동국대를 졸업하고 군승으로 활동했다. 군승 전역 후에는 경전과 선어록을 강독하며 경전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에 '격절록 강설(2019)'을 연재한 바 있으며, 도서출판 운주사가 발간한 '선어록 총서 시리즈' 〈원오심요 역주〉 〈마조어록 역주〉 〈방거사 어록·시 역주〉 〈임제어록 역주〉 〈조론 역주〉가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원오 극근 선사 진영. 원오 극근 선사는 중국 송나라 임제종 양기파 스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선맥을 계승한 제48대 조사다. 한국에는 〈벽암록〉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선어록 총서' 여섯 번째 권인 이번 역주서도 원문의 문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철저하고 꼼꼼한 번역과 주요 한문 및 한자어에 대한 풀이, 그리고 원문의 이해를 돕는 방대한 주(註)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주석에서는 각 칙마다 〈선문염송집〉과 비교를 하여 그 차이점을 서술하였으며, 또한 각 칙마다 별도로 전하는 원오와 설두의 염(拈)과 송(頌)을 모두 발췌해서 번역하고 이해를 도왔다.

〈격절록 역주〉는 '고칙(古則)과 착어'·'염고(拈古)와 착어'·'평창'으로 구성됐다. '고과 착어'는 설두 중현이 선별한 공안을 전하며 원오 극근이 공안의 한 구절, 또는 한 문장마다 간략하게 착어한 것이다. '염고와 착어'는 원오 선사가 설두 선사의 염을 전하면서 간략하게 착어를 한 것이고, '평창'은 고칙과 염고에 대해 원오 선사가 전반적으로 평(評)을 한 것이다.

〈설두송고〉를 평창한 〈벽암록〉과 〈격절록〉과의 차이는 수시(서언)의 유무(有無)만 있을 뿐이라는 게 역자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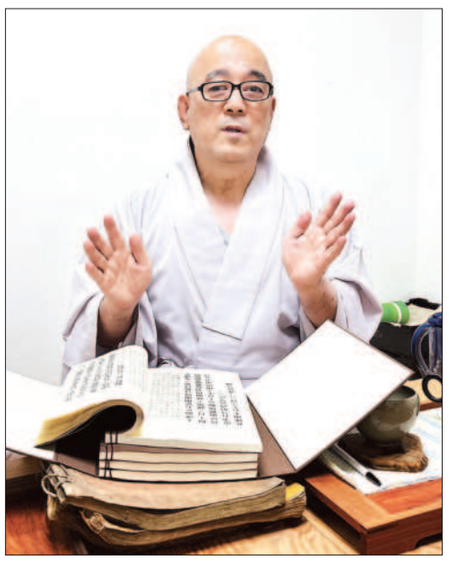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벽암록〉에 비해 〈격절록〉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까. 이에 역자는 "단 한 차례 안거 기간 중에 수좌들에게 100칙 공안의 핵심만을 찔러준 선가(禪家)의 비서(祕書) 중 비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격절록〉은 100칙 공안을 통한 화두 공부의 격절(擊節)이고 단도직입(單刀直入)의 교과서다. 역자 강승욱은 "〈격절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염고(拈古)의 격칙(格則)"이라며 "한 칙을 읽어 물 흐르듯 내려가 무릎을 치고 찬탄하며 붉게 노을 진 하늘을 홀로 걷는 눈 밝은 이를 바란다"고 전했다.

일체 고혼에 법식 베푸는 '시식'
"부처님 제자라면 누구나 실천을"



풀어보는 시식편람
법안 스님 역해
정우북스 펴냄/ 2만 원



조계종 어산 종장 법안 스님이 〈시식편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식은 불교 사찰의 중요한 의례 중 하나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정토에 왕생시키기 위해 천도재를 올릴 때, 또는 명절에 선망부모나 일체 고혼들에게 법식을 베풀고 경전을 읽어 주는 불교의식이다. 법식을 베풂으로써 그 공덕과 이익이 큰데 시식을 베풀어 받는 이들이 어둠의 세계(幽趣)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선도(善道)에 태어나게 하고 삼보에 귀의하게 하며 정각을 이루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시식을 이와 유사한 영반(靈飯)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안 스님이 역해한 '시식편람'은 이러한 시식을 명확히 설명하고 그 의미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시식통람〉을 편찬한 송나라 종효 스님은 지방이나 가까운 곳이나 승려든 속인이든 이 법을 좇아 행하는 자들과 비록 대부분 그 연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이를 편찬했다. 시식의 근원 경전이 되는 〈불설구면연아귀다라니경〉을 위시해 〈시감로수다라니주〉와 경전의 서문과 시식의 인연, 시식의 방법, 관심법, 시식정명, 시식연기, 영험기 등 34편을 모아서 펴냈다. 이는 시식을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살생으로 살아가는 광야귀신과 귀자모 등을 제도해 살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살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붓다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시식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식편람'의 역자 법안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에는 광야귀와 귀자모, 염구아귀 등을 위해서 시식하라는 붓다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상의 생반 의식이 발달해 있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면서 "붓다의 제자라면 누구나 생반의 시식을 하라고 당부했는데, 붓다의 당부인 시식을 실천하려면 '시식'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므로 이 책의 출간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효 스님의 〈시식통람〉과 〈몽산시식염송설법의〉 〈증수선교시식의〉를 번역하고 해설해 '시식편람'이라고 이름 붙였다. 〈몽송시식염송설법의〉와 〈증수선교시식의문〉의 풀이본을 합편했으나 실제 사찰에서 매일 저녁 예경 후 봉행할 수 있는 '몽산시식'을 '석례시식'이라 해 부록을 붙여놓았다.

법안 스님은 "만약 시식하지 않는 자는 자비심이 없는 것이고 나의 제자도 아니며 악도의 무리라고 한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제방에서 활용, 붓다의 가르침을 받들어 광야귀신과 귀자모, 아귀 등을 구제해주고 공덕을 지어 다 함께 소원을 이루고 해탈할 수 있기를 발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편람은 세계불학원 연구소가 2011년경부터 개최한 강독회에서 번역하며 학습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번역, 교감, 교정 등을 거쳐 출판됐다.

서울 서초 대성사 주지인 역자 법안 스님은 조계종 어산 종장, 어산작법학교 학장, 불교의례문화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한국불교 수륙재의문 연구〉 〈삼밀시식행법〉 등 다수의 논저가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천 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선의 정수!
격절록 역주
원오선사가 한 철 안거 동안 제자들의 확철대오를 위해 설한 법문으로, 선종의 종장인 설두중현과 원오극근의 언어도단, 촌철살인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원오극근 지음/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양장/624쪽/값 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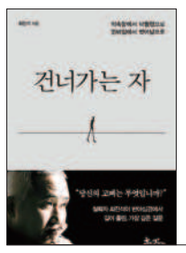
선의 정수, 선시의 묘취를 맛보다!
반야의 달 띄워 보세
서울 성북동 약사암에서 경전과 선어록을 가르치고 있는 일휴 스님이 붓다의 근본 가르침인 연기와 무아, 공성을 노래한 게송시와 번역시를 모아 엮었다.
옥당 일휴 지음/신국판/양장/744쪽/값 40,000원

붓다라면 경제학 입문을 어떻게 가르칠까?
불교 경제학
자비, 무소유, 상호 의존성, 지속 가능 사회 등 불교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재구성하여 자유시장 경제학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한 흥미롭고 파격적인 책!
클레어 브라운 지음/박찬국 옮김/신국판/무선/256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고해를 건너는 길, '반야심경'

〈苦海〉



건너가는 자
최진석 지음
쌤앤파커스
1만9천8백원

철학자 최진석이 현대 시선으로
반야심경 속 지혜 정수 풀어내
苦海 건너는 6가지 지혜 소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중생이 극락정토를 향해 반야용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간다. 통도사 극락보전 반야용선도 벽화.

어느 시대나 인류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영원할 수 없는 존재가 짊어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괴로움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대마다 인류는 많은 것들을 이뤄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짊어진 삶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류는 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수없이 많은 고전에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문장들을 볼 수 있다. 저자인 철학자 최진석은 그 많은 고전 중에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문장으로 〈반야심경〉에 주목했다.

저자는 책 〈건너가는 자〉에서 오늘의 시선으로 〈반야심경〉에 담긴 지혜의 정수를 풀어내 들려준다. 저자는 "인생이라는 고통을 건너는 법, 아주 오랜 시간에도 낡지 않는 '건너감의 지혜'가 바로 〈반야심경〉에 담겨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읽어낸 '타인에게 베푸는 지혜'부터 여섯 가지 방식의 지혜와 그 실천법 등을 소개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이 주문은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독법이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아제'는 '건너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자는 〈반야심경〉을 '건너가기'를 이야기하는 경전이라고 정의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건너가는' 태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그런데 왜 책의 제목이 '건너가는 자'일까. 저자에 의하면 〈반야심경〉은 '익숙한 이곳에서 새로운 저곳으로 건너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곧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며, 결국 〈반야심경〉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책 〈건너가는 자〉는 다섯 개의 장을 통해 '삼법인과 전도몽상', '십이연기와 사성제' 등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심경〉 속의 키워드들에 대해 이유와 근거,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시선 등을 설명한다.

"붓다가 바라본 세상은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 그야말로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통은 무엇일까요?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으로 축약되듯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우리 삶 일련의 과정 자체가 모두 고통입니다."

저자는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한 지혜가 바로 '건너감의 지혜'이며, 건너감의 지혜는 여섯 가지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타인에게 베푸는 지혜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오히려 내가 크고 넓어진다는 것을 알고 베푸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스스로 다짐을 지키는 지혜이다. 자신이 정한 규칙을 멈추지 않고 부단히 반복해 내는 것이다. 셋째는 번뇌를 묵묵히 견디는 지혜이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때 가해지는 비난과 오욕을 견디는 것이다. 넷째는 물러섬이 없이 나아가는 지혜이다. 용맹정진의 태도로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다섯째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지혜이다. 자신을 믿고 배려하며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다섯 가지 지혜를 실천해 내는 지혜이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다섯 가지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저자는 "건너감의 지혜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세상의 흐름에 짓눌리지 않고, 익숙한 '이곳'을 떠나 미지의 '저곳'으로 먼저 발을 내딛는 한 걸음이다. 그런 동시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세상을 자신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그리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 내딛는 한 걸음, 앎 이전의 실천인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건너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무거운 물건 내려놓듯 바로 버려야"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 연습
데이비드 호킨스 지음
박찬준 옮김 / 판미동 펴냄
1만6천원

〈놓아버림〉의 요약본이자 실천서
원작 주요 내용 쉽게 풀어 정리
스스로 답 · 기록 통해 일상서 체험
부정 감정 없애면 긍정 감정 솟아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 속 핵심 구절과 함께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내서가 출간됐다.

책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 연습〉은 호킨스 박사의 사상을 집대성한 저서 〈놓아버림〉의 요약본이자 실천서이다. 책은 원작의 주요 내용과 문장을 쉽게 풀어 정리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그림과 함께 독자들이 일상에서 놓아버림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글과 질문들로 구성했다. 동시에 원본의 내용도 함께 수록해 원작의 해당 대목을 함께 읽어가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책은 〈놓아버림〉의 요약본일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기록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공간은 긍정성과 감사를 기르는 감사 일기장, 불안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치유 도구로써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다.

책은 건강, 두려움, 분노, 돈, 인간관계, 직업, 소망 등 삶의 주요 영역별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한다. 독자들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문장을 읽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놓아버림을 몸소 실천하고, 내면의 변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놓아버림의 실천을 시도했지만 좌절했거나,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희망하는 독자들에게 견고한 지침서이자 훌륭한 목적지가 되어 줄 것으로 보인다.

놓아버림을 통한 자기 발견의 여정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감정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어 되돌아오기 때문에, '마치 무거운 물건을 내려놓듯' 바로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부정적 감정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연히 환희, 행복, 안도감 같은 긍정적 감정이 솟는다는 것이 놓아버림기법의 핵심이다.

저자는 놓아버림은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지만, 자연스럽게 의식적으로 놓아버리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책은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낮은 수준의 부정적 감정과 습관부터 놓아버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낮은 수준의 감정과 에너지를 내려놓고 보다 높아진 의식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 책은 무기력, 두려움, 불안, 분노,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환희, 감사, 평화로움, 사랑 등 긍정적인 마음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놓아버림 체험의 길잡이다.

박재완 기자

탄소발자국 감소만으론 지구 구할 수 없어

기후위기 근본 원인 진단 · 대안
지구 다른 생명들 무시한 결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
에릭 잠파 앤더슨 지음
김성환 옮김
한문화 펴냄
1만7천원

지구는 병들었다. 여섯 번째 대멸종이 일어날 수도 있다. 탄소발자국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제 지구를 구할 수 없다. 책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지구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책에 의하면, 지금의 기후 위기는 '인간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됐다.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오직 인간만이 홀로 번성하는 길을 걸어온 대가이다. 책은 인류가 세상을 대하는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위기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변화를 촉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의 뿌리를 진단하고 탐색한다.

책은 지구에 인류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류가 어떻게 망각했는지 알려준다. 인류가 그동안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외면해 온 그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설정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단서라고 이야기한다.

인류는 긴 시간 동안 인류만이 유일하게 이성적 의식을 지녔다고 믿으며 나머지 수백만의 생물종은 '자연'과 '재원'으로만 취급해 무시하고 착취했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의 무수한 사회적, 생태적 위기를 초래했다. 기후 재앙이라는 실존적 질병에 관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문제 자체와 문제의 원인, 앞으로의 전망, 해결 방법 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부에서는 인류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살핀 뒤,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밝힌다. 2부에서는 환경문제의 병인학(질병의 원인과 작용 방식을 다루는 학문-옮긴이)과 발병 기전을 다루면서 철학, 종교, 과학 모두가 이 질병의 발달과 진행 과정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탐색한다. 3부에서는 생태학과 질병이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병의 예후를 다룬다. 인류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암울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4부와 5부에서는 기존의 철학과 신화, 태도, 행동 등을 수정하는 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한다.

박재완 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현상에 집착 말라…그래야 ‘苦樂’ 사라진다”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제3강

이것 모르면 빌 게이츠도 괴롭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매주 화요일 ‘선명상 아카데미’에서 선명상 강의를 진행 중이다. 7월 9일에는 ‘이것 모르면 빌 게이츠도 괴롭다’를 주제로 세 번째 강의가 열렸다. 본지는 제3회차 강의를 정리해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신중일 기자 · 김가령 수습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9일 선명상 아카데미 제3강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오늘은 고락(苦樂)의 내용과 그 인과 법칙을 설명하겠다. 전생은 이미 내가 경험한 바 있는, 하지만 현재 나는 모르는 과거의 습식이자 업식이다. 이것이 훈습돼 지금 내가 버릇처럼 반복한다.

부모를 닮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의 업과 카르마가 부모의 업, 카르마와 비슷하기에 유유상종해 만난 것이다. 닮은 점이 있기에 서로 애착을 갖는다. 이런 애착은 즐겁고 행복하지만,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 거기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때로는 가장 애착하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

고락은 다가오는 시점이 다르다. 즐거움이 오는 시점이 있으면 괴로움이 오는 시점이 반드시 있다. 물리적으로 해가 뜨면 지고, 밀물이 오면 썰물이 나가는 이치처럼 너무나 명백하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여기에 상대적인 것도 존재한다. 반드시 생로병사(生老病死) 성주괴공(成住壞空)한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인연생기(因緣生起)’라고 한다. 서로 인연이 돼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부분을 여실히 깨닫고 현상을 봐야 현상을 의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연한 소치, 필연적 결과라고 해서 그야말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사사건건 보고 듣는 것 모두에 나의 인식이 미친다. 결과적으로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즐거움을 얻음으로써 괴로움도 동시에 얻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현상적 윤회와 현상을 보는 마음의 고락 윤회가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수천, 수만 년을 살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다. 과학 문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제 인공지능(AI)시대까지 도달했다. 이대로 발전하면 앞으로 사람들은 공중에 떠서 살게 될 것이다. 도로가 없어지고 자동차, 배가 모두 사라져 모든 것이 공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옛날 자장 율사의 유체이탈(몸은 그대로 있고 영혼만 빠져나가는 것) 사건이 있었다. 그것이 가능할 정도로, 혹은 그 이상. 그렇게 되면 육체가 필요 없게 된다. 몸이 필요 없는 시대가 생길 것이다. 물리적인 몸이 없어도 나의 식(識)만 이동이 가능하면 내 몸을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나의 식만으로 얼마든지 할 일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살아온 인간들은 지금쯤 원하는 것을 모두 이뤘어야 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이루고도 괴로움이 없어졌는가. 발전을 거듭했는데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은 없어졌는가. 과학의 진보는 괴로움의 소멸과 별개인 인간 욕심의 산물일 수 있다. 문명이 계속 진보하는 것도 인간의 욕심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려고, 괴로움을 없애려고 노력해 왔지만, 그것이 과연 없어졌는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정치·사회·경제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가. 세상에 우연은 없다. 이것들은 모두 필연적 결과일 뿐이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오로지 내 문제다.

돈이 많은 부자나 권력을 얻은 정치인 하물며 종교인, 수행자라고 해서 괴로움이 없겠는가. 택도 없는 소리다. 불교의 ‘중중무진’, 양자역학의 ‘중첩된 상황’들처럼 결과물로서 현상에서 인연 지어질 뿐이다. 돈이나 권력으로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만 대가인 인(因)과 업(業)이 따른다.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원인과 실체를 모르면 절대 괴로움을 없앨 수 없다. 과연 현상이 문제인가. 현상을 놓고 계산하는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이 사람이 좋다 싫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비롯해 눈으로 보는 현상, 귀로 듣는 현상, 코로 맡는 현상, 맛을 보는 현상, 몸으로 느끼는 현상, 머리로 생각하는 현상까지. 불교는 안·이·비·설·신·의 6근과 이를 통한 경험인 6경, 나의 생각을 얹어버리는 6식을 합쳐 18계라 부른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현상들은 18계에 들어있다.

삼라만상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아무리 쪼개도 없어지지 않아
깰 수 없는 벽을 깨는 게 ‘禪’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수행을

결국 모든 것은 나의 인식과 감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문제의식이 없고 편안하면 상관없다. 그러나 세상이 평화롭고 극락이어도 내가 슬프고 괴롭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각자 가진 고락의 업식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를 단적으로 ‘공(空)’이라고 했다. 또한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실체가 없다. 좋든 나쁘든 상대적인 나의 관념이자 인식일 뿐 실체가 없는데 이것을 보고 희로애락을 느낀다. 현상에 실체가 없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집착하지 않아야 괴로움이 사라진다.

‘일수사견(一水四見)’은 하나의 물도 입장에 따라 네 가지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물고기는 물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본다. 천상인은 물을 보석으로 보고, 아귀는 피고름으로, 사람은 먹는 물로 본다. 동물들조차 우리와 보는 세계가 다르다. 그런데 그것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보는 시각, 고락의 크기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안·이·비·설·신·의를 갖지 않은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 우주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보는 이 사물을 우리처럼 볼까.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이 대두된다. 우리와 같은 몸은 없지만 어떤 식견, 업식이 존재하지 않을까 궁금해진다.

모든 물체가 원자로 구성돼 있다. 이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 이합집산하고 인연돼 사람이 되고 산도, 물도 된다. 모든 물체와 실체라는 물리적인 것들은 알갱이의 모임이다.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였을 뿐이다. 생로병사 성주괴공 해서 이런저런 형태와 물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인연생기, 연기로 본 것이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결과가 있다. 결과인 동시에 다시 원인이 되고 또 결과를 이루는 이것이 계속 연결돼 우주를 그린다. 이것이 ‘삼라만상’이다.

현상은 서로 비교해서 생겨난다. 그냥 보면 보는 것이지만, ‘위’하면 ‘아래’가 생기고 ‘크다’ 하면 ‘작다’가 생긴다. 물체 하나만 두고 보았을 때는 크다, 작다 할 수 없지만 비교 대상을 두는 순간 가능해진다. 실체와 현상은 순전히 주관적·상대적이다. 크고 작음을 함부로 논할 수 없다.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우주에 지구가 있다. 지구는 수억 km 밖에서는 하나의 점일 뿐이다. 더 멀리 나아가면 보이지도 않는다. 심지어 태양계 바깥에서 지구는 존재조차 알 수 없다. 우리가 보는 별빛은 오래 전 별이 발산한 빛일 뿐 현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화엄경〉 법성게의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이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은 티끌에도 시방세계가 담겨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1초, 찰나, 겁(劫) 등으로 계산된다. 이 시간이 얼마나 짧든 길든, 결국 마지막이 온다. 눈을 깜빡하는 찰나와 길고 긴 겁에도 마지막이 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과거와 미래를 느낀다고 착각할 뿐이다. 법성게의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은 무량(겁)이 찰나에 들어있다는 뜻이다. 한 생각 안의 어마어마한 시간이 찰나에 들어가 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바라본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한다. 그렇게 실체와 현상을 주관적으로 보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모양새다. 장님은 자신이 만진 부분만 코끼리인 줄 안다. 그렇게 내 주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괴로움과 업으로 다가온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나의 괴로움이다. 그냥 지나가길 바라지만 쉽지 않다. 현재가 미래로 이어지며 계속 겹치고 겹친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도 겹친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반복된다. 이처럼 현상은 잘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 현상에서 벗어난 것이 ‘공’이다. 고락의 양면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를 선(禪)에서는 ‘성성적적(惺惺寂寂)’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게 가능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조금도 괴롭지 않다. 벼락을 맞아도 벼락을 맞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뿐, 괴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고락’이라고 하는 업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잘 없어지지 않는다. 도저히 깰 수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철벽, ‘금성벽(金城壁)’이다.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는 게 바로 선이다. 이를 통해 제로가 되고 해탈, 니르바나, 성불, 견성이 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몸으로 하는 행동, 말로 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걸림이 사라진다. 자동으로 내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 자동으로 신·구·의 삼업 청정해진다.

지금이라도 고락이라는 감정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선명상이다.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눕든, 앉든, 걷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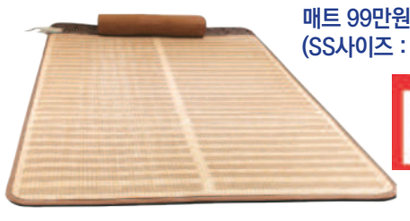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일방적 천주교 성역화, '민중사'도 지운다

주목! 불교 논문

천주교 성지에 가려진 내포지방 민중사

현대불교신문은 격주로 법회 현장의 법문과 불자들이 주목해서 읽을 만한 논문들을 지면에 소개합니다. '주목! 불교 논문'에서 소개할 첫 번째 논문은 7월 2일 열린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 발표된 '천주교 성지에 가려진 내포지방 민중사(김학로)'입니다. 천주교 성지 조성 문제는 단순히 불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학농민운동이나 다른 민족종교와도 연계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천주교가 성역화가 복합역사공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한 '천주교 성지에 가려진 내포지방 민중사' 중 일부를 발췌 · 정리했습니다.

정리=신중일 기자



해미읍성 전경. 내포동학농민운동의 중심지였지만, 이는 조명되지 못하고 천주교의 성지로만 알려지고 있다.

홍주읍성과 내포동학농민혁명

충남에는 천주교 순례길이 140.5km에 달한다. 천주교와 관련된 성역화된 성지로 해미순교성지, 솔뫼성지, 합덕성당, 신리성지, 여사울성지, 갈뫼못성지와 해미국제성지 디지털역사체험관, 여사울 복합문화센터, 충청수영성 등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 중 해미순교성지는 2020년 교황청이 해미국제성지로 승인한 국내 유일의 단일성지이다.

천주교가 성지로 성역화하려는 곳으로 홍주읍성이 있다. 홍주읍성은 병인박해 때 많은 천주교인이 갖은 고초를 겪거나 희생된 곳이다. 홍주읍성에서 천주교인이 희생되었던 원인은 병인박해 시기 내포지방에는 많은 천주교 신자가 있었던 점과 홍주가 내포지방 행정의 중심이었던 점 때문에 당시 내포 일대에서 잡힌 천주교인을 홍주읍성으로 이송해 처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박해받은 천주교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많은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많은 천주교인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천주교는 홍주읍성과 홍주읍성 일대를 천주교 성지로 삼고 성역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홍주의 위상은 공주, 청주, 충주와 더불어 목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으로 충청도의 주요한 군현의 하나였고 홍주읍성은 홍주목의 행정치소였다. 홍주읍성의 축조 시기는 기록이 없어서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해안에 접한 홍주에도 평지성인 읍성이 설치되었는데 조선 세종 때에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곽 축조를 했고 문종 1년(1451)에 새로 고쳐 쌓았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성의 크기는 둘레가 4,856척(약 1.5km), 높이는 11척(약 3.3m)이며 문은 4개가 있었고, 여장·적대 등의 여러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안에는 우물 2개가 있었다. 근대시기 홍주는 다양한 정치 사회적인 문제의 격전장이 될 수밖에 없어 다양한 사건과 사태가 홍주읍성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주교인에 대한 병인박해였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홍주성 전투와 의병에 의한 홍주읍성 점령을 들 수 있다.

동학은 1880년대 초부터 내포지방에 크게 확산하였는데 조선 조정은 내포의 호서를 두고 호남과 더불어 양호지방이 동학으로 뒤덮였다고 우려했다. 내포지방의 동학농민혁명이 본격화된 것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 내포에서 시작되면서부터였다. 1894년 10월 1일 태안에서 시작된 내포지방의 동학 기포는 서산, 해미, 면천, 당진, 온양, 아산, 신창, 예산, 대흥을 거쳐 홍주에 이르렀다.

내포의 동학농민군은 태안군수 신백희와 서산군수 박정기를 효수하고 해미읍성과 오천 충청수영의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조선 토병으로는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로 내포의 동학농민군은 면천 승전목 전투에서 일본군 후비보병 19대대와 정규 조선 경군의 혼성부대를 물리쳤고, 예산 신례원 전투에서는 홍주목사 이승우가 이끄는 홍주관군을 크게 무찔렀다.

신례원 관작리 전투는 1894년 10월 26일 시작되었다. 관작리 벌판에서 서로 대포를 쏘며 시작된 전투는 시작하기도 전에 승패가 결정된 것과 같았다. 면천 승전목 전투에서 승리해 사기충천했던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은 억지로 끌려 나왔다 싶은 홍주관군을 일방적으로 몰아 붙였다. 관작리 전투에서 홍주관군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홍주성으로 후퇴했다. 관작리 전투에서 패한 홍주관군의 피해는 예상보다 컸다. 특히 홍주관군의 구심 노릇을 하던 중군장 김병돈과 영관 이창욱, 주홍섭·창섭 형제 등이 함께 죽임을 당했다. 관작리 전투에서 참패당한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 홍주성은 두려움에 떨었고, 뒤늦게 출동하다 만난 일본군도 함께 가서 공격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로 다투어 도망치기에 바빴다.

충남 지역 천주교 성지길만 140km
해미읍성, 홍주읍성 천주교 성지화
두 곳 모두 내포동학농민운동 중심
과도한 성지화에 민중사 망각 위기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이 홍주성에 몰려든 것은 1894년 10월 28일의 일이다. 신례원 관작리 전투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덕산 역촌에서 유숙하였다. 덕산에서 홍주성까지는 30리 길이다.

홍주성을 에워싼 농민군은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열흘쯤 에워싸면 식량이 떨어져 스스로 걸어 나올 것이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바로 공격한다면 하루 이내에 함락시킬 수 있다고 했다. 홍주성 전투는 28일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홍주성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 때문에 한 때 홍주성 동문인 조양문 앞까지 진출했던 농민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틀간 계속된 전투에서 농민군은 사상자만 내고 후퇴하였는데 성 아래에서 죽은 동학군이 대략 600~700명이 되었다고 한다.

홍주성 전투가 끝난 뒤 홍주성 일대는 그야말로 살육의 현장이었다. 홍주성 전투가 끝난 뒤 홍주성을 구하기 위해 파견되어 온 도순무영 장위영 영관 우선봉장 이두황은 〈양호우선봉일기〉에서 홍주성의 참상을 이렇게 적었다.

"묘시에 홍주에서 길을 떠나 군사를 이끌고 홍주성동문으로 나가니, 좌우에 있는 민가가 다 불타 버리고 남은 집이 없었다. 보기에 참혹한지라 길가는 사람에게 물어 보니 '지난달 28일에 동도가 성을 포위하고 접전할 때에 그 무리들이 불을 질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00여 보를 더 걸어 나가니 적의 시체가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었고, 숲 덤불에는 송장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해미읍성과 동학농민혁명

해미면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서산시에 속한 작은 면이지만 1914년 이전에는 해미현이었다. 해미읍성은 해미현의 치소로 천주교가 성지로 생각하고 성역화하려는 곳이다. 해미면에는 해미읍성뿐 아니라 천주교 박해시기 많은 천주교인이 박해를 당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 천주교 입장에서는 중요한 성지로 생각하고 있다. 천주교 박해 당시 해미읍성은 호서우영이 있었던 곳으로 내포지방 천주교 신자 다수는 해미읍성으로 이송되어 해미읍성 주변에서 처형됐다고 한다. 해미에서 천주교인이 처형된 곳은 해미읍성 옥사, 황무실 성지, 생매장터 진둠벙, 해미 서문 밖 순교지, 여숫골 등이다. 이 모두에 대해 천주교회에서는 성지로 삼고 성역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천주교회가 해미읍성에 대해서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이다.

해미읍성에 있는 옥사와 옥사 앞에 있는 회화나무에 대해 천주교회는 성역화하는 데 주력하고있다. 안내판에는 해미읍성 옥사가 천주교인을 박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이 역시 서산시청이 천주교회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안내문을 만들어 게재했을 것이지만 해미읍성 옥사에는 천주교인뿐 아니라 수많은 죄수가 갇혀 있었던 옥사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해미읍성은 천주교만의 역사적 공간이 될 수 없다. 해미읍성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이순신 장군이 초급 무관 시절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고,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내포의 동학농민군이 점령하여 무장하는 등 장기간 주둔하며 보급기지로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다. 또한 홍주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 해미읍성은 패전한 동학농민군이 재기를 준비했던 곳으로 토벌군인 도순무영 우선봉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과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살육당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내포동학농민군이 해미읍성을 점령한 것은 1894년 10월 2일으로 점령은 홍주성 전투가 끝난 1894년 11월까지 이어졌다. 홍주성 전투에서 크게 패한 내포동학농민군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서산과 태안, 해미, 면천, 당진의 동학농민군은 해미읍성으로 후퇴하였다. 해미읍성에서 전열을 정비한 후 다시 한 번 재기를 노린 것이다.

해미성에서 홍주성을 다시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군과 일본군, 유회군은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데 전력을 집중했다. 특히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의 육군 대위 야마무라(山村忠正)가 병사 200명을 이끌고 아산에서 들어왔다. 야마무라의 일본군은 이후 서산과 태안, 해미 등 내포지방을 휩쓸며 수많은 동학농민군을 무참하게 살육했는데 심지어 총알을 아낀다는 이유로 개머리판으로 때려죽이기까지 했다.

현재 내포지방 주요 역사 유적에는 천주교의 성역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홍주읍성과 해미읍성에는 천주교와 관련된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고 천주교 입장을 반영하는 안내판이 게재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성역화 사업이 일방의 편향에 의한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갈등의 유발이라는 반사회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미읍성을 찾는 천주교 관련 방문객은 전체 중 10%를 넘지 않다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증언이었다. 그것도 특정한 시기에 집중해서 방문하는 형태에 지나지 않아 전체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관람에 방해를 받는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행정당국은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또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14 조계산 선암사



▶한줄 요약
선암사 경내는 마치 어린 시절 마을 모습 같다. 집마다 담이 둘러싸여 있고 그 담장 따라 마을 길이 이어지는 것처럼, 선암사 경내가 그렇다. 담마다 몇 개의 전각을 둘러싸고, 담과 담이 길을 만들어 하나의 사찰로 꾸며져 있다.

'三無' 문턱 낮춘 선암사, 그래서 더 정겹다

선암사에서 해천사로, 다시 선암사로

전남 순천 조계산 서쪽 골짜기에는 송광사, 동쪽 골짜기에는 선암사가 자리하고 있다. 두 절 모두 본사에 해당하는 대찰이다. 한때 송광사스님과 선암사스님은 산길을 통해 두 절을 왕래하여 불법을 구하기도 하였다. 요즈음에는 그러한 구도길을 나선 스님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대신 조계산 고개를 넘어 송광사와 선암사를 순례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듣는다.

선암사는 신라 법흥왕 때 아도화상이 산 이름을 청량산(淸涼山), 절 이름을 해천사(海川寺)로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신라에서 활동하던 아도화상이 백제 땅인 이곳으로 와서 절을 창건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또는 통일신라시대 9세기경 도선국사가 비보(裨補)도량의 하나로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다.

선암사라는 절 이름을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우선 절 주변에 있는 큰 바위에서 선인들이 바둑을 두었다 하여 선암이라 하였단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조선 숙종 때 호암 선사가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조계산 장군봉 배바위에 올라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자 낙심하여 몸을 바위 아래로 날렸다.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나 선사를 받아 배바위에 올려놓았다. "나를 위해 몸을 버리는 것은 보리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여인은 사라졌다. 호암 선사는 그 여인이 관음보살임을 깨닫고 원통전을 지었다. 그때 보았던 관음보살의 모습대로 불상을 조성하여 원통전에 봉안하였다. 그 후에 사람들은 신선이 내린 곳이라 하여 선암사로 불렀다.

그런데 선암사에 화재가 자주 일어나자 1761년 상월 스님이 산의 이름을 청량산, 절의 이름을 해천사로 바꾸었다. '淸(청)', '涼(량)', '海(해)', '川(천)'으로 모두 물 천지다. 산 이름과 절 이름에 담긴 수기(水氣)로써 화기(火氣)를 제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 보람도 없이 1823년 또 화재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중창 불사와 함께 1825년 다시 그전 이름인 조계산 선암사로 바꾸었다. 이름을 바꾸었지만 큰 영험이 없었나 보다.

현재 선암사 일주문 앞면에는 '曹溪山 仙巖寺(조계산 선암사)'라는 현판이 걸려있고, 뒷면에는 '淸凉寺 海川寺(청량사 해천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선암사에는 천왕문 · 주련 · 어간 등이 없다

선암사는 화재 방지를 위한 상징이 곳곳에 있다. 대웅전 앞 심검당 환기창에는 '水(수)'자와 '海(해)'자를 창살처럼 장식하였다. 무엇보다 선암사 경내에는 석등이 없다. 화재가 잦아 아예 불을 상징하는 물건은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로 오는 길옆에 몇몇 석등이 있다. 시주자들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석등이다. 절에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지만, 시주자들의 마음을 마다할 수 없어 길옆에 석등을 두었다.


승선교와 강선루.

선암사는 석등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삼무(三無)의 사찰로 유명하다. 선암사에는 사천왕문이 없고, 주련이 없고, 어간문이 없다. 어간문은 법당 가운데 문을 말한다. 보통 어간문은 스님이 다니고, 신자는 옆문을 이용한다. 그런데 선암사 대웅전에는 어간문이 없다. 그것은 불제자라면 출가자든 재가자든 모두 똑같이 자신을 낮추라는 뜻에서 그렇단다. 하심(下心)은 불제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다. 주련은 법당 기둥에 세로로 글귀를 적어둔 판을 말한다. 깨달음의 경지는 말이 필요 없기에 주련을 달지 않았다. 선암사 뒷산이 조계산 장군봉이다. 그 장군봉의 기운이 워낙 좋아서 다른 장군은 필요 없다 하여 사천왕문을 세우지 않았다.

간혹 주련 대신 대웅전 부처님의 협시보살(본존불 좌우에 자리한 보살)이 없다는 점을 삼무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다. 하지만 대웅전에 협시보살이 없는 사찰은 많다. 그러므로 삼무의 대상은 어간·주련·사천왕문이 나을 듯하다.


대웅전 전경.

가장 아름다운 절 다리, 승선교

선암사는 참으로 아름답고 정겨운 절이다. 주차장에서 편안한 절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승선교(昇仙橋)가 나온다. 승선교 밑에서 바라보는 강선루(降仙樓)와 함께하는 승선교 풍광은, 우리나라 절 다리 풍광 가운데 최고라 평하여도 이견이 없으리라.

승선교는 1698년(숙종 24년)에 호암 선사가 세웠다. 호암 선사는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진 선암사 중건에 힘을 쏟은 스님이다. 호암 선사 덕분에 지금의 선암사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한다.

산 너머 송광사 능허교처럼 선암사 승선교에도 엽전 이야기가 전해진다. 호암 선사는 다리 불사를 위해 예산을 세우고 한 푼 두 푼 시주를 받았다. 이렇게 모인 시줏돈으로 불사를 마치고 보니, 엽전 세 냥이 남았다. 시주받은 돈을 다른 일에 쓰면 호용죄(互用罪)로 계율에 어긋난다. 이에 선사는 다리에 엽전 세 냥을 남겨두었는데, 지금은 한 냥만 남았다고 한다. 어느 틈새에 엽전을 끼워두었는지, 필자가 다리 밑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지만 찾지를 못했다.


선암사 화장실은 '뒤ㅅ간'이라 한다.

강선루는 승선교에서 100m 정도 거리에 있다. 승선교 아래로 내려와 다리 밑에서 승선교와 함께 보는 강선루는 참으로 멋있다. 신선들이 내려와 목욕재계하고 승선한다는 의미다. 누구라도 속계에서 선계로 들어와 열심히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선암사 터는 지기가 강한 곳이라고 한다. 각황전 터가 특히 강하므로 각황전은 지기(地氣)를 어루만져 주는 역할을 하고, 절 입구에 있는 승선루는 지기가 빠져나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단다.

강선루를 지나 조금만 가다 보면 알 모양의 연못을 만난다. 삼인당(三印塘)이다. 신라 경문왕 2년(862)에 도선 국사가 축조하였다. 선암사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이름과 모양을 가진 연못이다. 이 연못은 무상, 고, 열반 등의 심오한 불교사상을 나타낸다. 다른 이야기도 있다. 뒷산이 거북이 형상의 구봉(龜峯)이므로 거북이에게 필요한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조성하고, 그 가운데 거북의 알을 상징하는 섬을 만들었단다. 거북이에게는 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알이 없으면 자손이 끊기기 때문이라나.

마을 같은 사찰 경내를 거닐다

선암사 경내는 마치 어린 시절 마을 모습 같다. 집마다 담이 둘러싸여 있고 그 담장 따라 마을 길이 이어지는 것처럼, 선암사 경내가 그렇다. 담마다 몇 개의 전각을 둘러싸고, 담과 담이 길을 만들어 하나의 사찰로 꾸며져 있다.

특히 원통전과 뒤깐(뒤ㅅ간)은 관심 있게 살펴볼 일이다. 대웅전 뒤편에 자리한 원통전은 호암 선사가 관음보살을 친견한 뒤 세운 법당이다. 기도 효험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정조 13년(1789년)에 임금이 후사가 없자 스님들이 원통전 등에서 백일기도를 하여 1790년 순조 임금이 태어났다. 후에 순조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人(인), 天(천)', '大福田(대복전)'이라는 친필 현판을 보내왔다. 대복전은 큰 복을 키우는 밭이라는 축원의 의미다. 불보살님에게 정성을 다함으로써 자신의 복을 자라게 한다는 의미에서 불보살님은 중생의 복밭(福田)이다. 현재 원통전에 걸려있다.

선암사 화장실에는 '뒤ㅅ간'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이제 일반인도 잘 알듯이, 절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라 한다.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1892~1982)이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근심을 해결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혹은 화장실에서는 옷을 풀어헤치기 때문에 해의소(解衣所)라는 하는데 그 말이 변하여 해우소라 하였단다. 선암사 '뒤ㅅ간' 현판을 보면, 해의소와 유사한 엉뚱한 듯 재미있는 풀이를 한다. 이 현판을 반대 방향으로 'ㅅ간뒤'로 읽으면서, 엉덩이를 '깐 뒤'에 볼일을 보기 때문에 'ㅅ간뒤'라고 한다나. 엉덩이를 까지 않고는 볼일을 볼 수 없으니 말이다. 해학이 넘치는 해석이다.

선암사는 참으로 정겨운 절이다. 불보살님을 뵈면 마을 어르신을 뵙는 듯하고, 담장 길을 걷다 보면 함께 놀던 동무들이 생각난다. 순간 어디선가 외치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린다. '찬아, 그만 놀고 밥 먹자.' 〈불교학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92호 | 15 | 전면광고

비록 사람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뒤에삼가 다시 짓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비추리.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이.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남사천 • 대지 : 27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매가 : 3억
- 위치 : 부산포교원 • 법당 : 100평
- 시내공원앞 • 주차가
- 매가 : 12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 채무채권 상담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387, 화룡사
- 가액 : 3천 2백만원

기타 문의는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010-6688-9946

사찰(급)안내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 대 지 : 260평
- 법 당 : 46평 7포 황금단청
- 요 사 : 72평
- 가 액 : 43억

010-3765-1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 건평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7억 5천만원

010-6898-911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5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0억원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 1길 33-12
- 대지 : 320평 법당15평 요사40평 별채15평(건물 미등기)
- 난방 : 가스
- 가격 : 1억 내린 2억9천(급매)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원지
- 대지 : 약 530평 건물 3동, 탑 2기, 석등 2기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저온창고 5평
- 공양간 30평, 방 5개, 화장실 5개 스님 접견실, 주차공간 20대
- 가액 : 3억 3500만원

010-7364-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1리 산45-5 문수암
- 건물3동 24평 · 12평 · 20평
- 임야 총면적 500평
- 가액 : 2억 1000만원

010-6745-05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매매가 70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985-9190	H 010-2813-8008
충청지사	유재상		H 010-8341-0560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92호 | 16 | 전면광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면 무슨 일이든 마침내는 이루어진다. 저 시냇물이 흘러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듯이.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종도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010-4766-6358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밀양 재악산 영산재 학인모집
의식 및 사물. 대금. 태평소
전통의식에 관심있으신분 많은동참바랍니다.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밀양시 초동면 영원사
010-3156-2211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도암사
• 주 지 : 성엽 스님 (속명 : 이용관)
• 승 번 : 4182
•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로 955(정천리)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제1기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모집공고
(팔공산 범음범패 교육원)

모집대상
- 한국불교태고종 스님. 전법사. 교임 - 타종단 승려도 가능
- 불교신자 또는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모집학과 및 교육내용
- 초기반 도량석, 종성, 예불, 삼보통청, 예불의식(법회 집전 의식)
- 전문반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재의식(시다림, 49재), 점안의식, 불교사물(목탁. 요령. 징. 북. 바라. 작법. 의식이론 등)

교육일정
- 초기반 개강일 2024. 8. 26(월) / 수료일 2025. 1. 21(화)
- 전문반 개강일 2024. 8. 27(화) / 수료일 2025. 1. 21(화)

교육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법당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접수 및 문의처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교무국장 법륜스님 (010-9233-8371)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영적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빙의치유전문의'를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숨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으로 빨리 벗어나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⑭ 좋은 찻물을 위해서

‘명천’ 위해 선현은 노력 아끼지 않았다

〈茗泉〉

차를 다루는 일은 긴장된 마음을 이완시키는 오묘한 작용이 있다. 요즈음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에는 따뜻하고 싱그러운 녹차가 주는 위로가 큰 힘이 된다. 이런 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물이 가장 중요하여, 초의 선사도 〈동다송〉에서 “물은 차의 근본(體)”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기에 산간(山間)에 살면서 명천(茗泉)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면, 차의 기미(氣味)를 즐길 수 있는 제일 조건을 구비한 것이므로, 예나 지금이나 차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명천을 구할 수 있는 청복(淸福)을 소망하는 것이리라.

얼마 전 청나라 초기 인물 육정찬(陸廷燦)이 편찬한 〈속다경(續茶經)〉을 읽다가 옛사람들이 좋은 물을 얻는 방법의 묘미를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이 하도 진지하고 자세하여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속다경〉을 편찬한 육정찬은 어떤 인물인가. 그의 생몰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 청나라 초기의 인물로, 강소 가정 출신으로 알려진다. 그의 호는 만정(幔亭), 추소(秋昭)라는 자를 썼으며 시문에 능했다. 평소 차를 매우 사랑하여 세상에서 ‘다선(茶仙)’으로 칭송됐다. 그가 편찬한 〈속다경〉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당(盛唐) 때 육우(陸羽)가 저술한 〈다경〉의 체재를 모방해 구성했다. 육우의 〈다경〉이 중국 차 문화의 맹아기로부터 당 중기까지 차와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라면, 〈속다경〉은 당 중기로부터 청초(淸初)까지 차에 관련된 문헌을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속다경〉은 중국 차 문화 전반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차 문헌이라고 하겠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옛사람들이 명천을 얻는 방법을 살펴보니 〈속다경〉의 ‘송우재의 물을 운송하는 약조(松雨齋 運泉約)’에 자세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혜산천의 물 운송은 물 단지마다 뱃삯과 인력 비용을 은(銀) 3분으로 상환한다. 물 단지, 물동이 값과 물동



명나라 시기 문징명이 그린 ‘품다도’. 대만 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물은 차의 근본”… ‘속다경’에 찻물 공수 노력 확인
생수 보편화된 현대엔 좋은 찻물 얻기 매우 어려워

이는 대개 자신이 준비하므로 계산하지 않는다. 물이 도착하면 각 벗에게 급히 알려 사람들이 스스로 가져가게 한다. 매달 상순(10일경)에 은전을(비용을) 거두고 중순(20일경)에 물을 운송한다. 매달 한번 물을 가져오면 맑고 새로운 물을 가져올 수 있다.(運惠水, 每罈償舟力費銀三分. 水罈, 罈價及罈 盖自備不計. 水至走報各友 令人自擡　每月上旬斂銀 中旬運水 月運一次 以致淸新)

윗글의 송우재는 명대의 문인 이일화(李日華, 1565~1635)의 당호로 짐작된다. 그의 품다와 품천(品泉)에 관한 견해는 〈죽란다형(竹嬾茶衡)〉에 자세히 서술했다. 그러므로 그는 찻물의 중요성을 알고 혜산천(惠山泉)을 가져와 신선한 샘물을 공급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물을 공수하기 위해 필요한 물동이를 각자 준비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물 운송비용은 뱃삯과 물을 운송하는 인력 등으로 제한하여 각각 은(銀) 3분을 각출했다. 물이 도착하면 각자에게 빨리 통보하여 가져가게 했다. 이 또한 물 운송의 이동 속도를 고려하여 신선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며 다른 한편으론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물 운송 약조에는 매월 초에 돈을 거두고 중순에 물을 운송하여 매달 한번 정도 가져오면, 언제나 신선하고 맑은 찻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라 하겠다. 이밖에도 물을 원하는 자는 (약조) 책 한쪽에 물동이 숫자를 쓰고 편의대로 약조를 써둔 책에 기록하여 물동이 숫자에 따라 은전을 맡기는 등 서로 간에 필요한 물동이 개수를 정확하게 남기도록 했다(願者 書號於左 以便登冊 併開　數 如數付銀). 그가 인식한 차의 가치는 바로 삭막한 마음에 윤기를 더하며 막히고 답답한 것을 씻어낸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명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液瀝易枯 滌滯洗蒙 茗泉不廢)

결국 명차에는 좋은 차에 걸맞은 물을 만나야 신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차의 공력을 얻어, 마침내 물외(物外)를 소요하는 것과 견줄 수 있는 경지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 차를 즐기는 일이나 명산을 주유하는 일은 풍진 세상을 멀리할 수 있는 뗏목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차는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유용한 정신음료이다. 그러므로 현대인도 차를 즐기며 유통되는 생수를 쉽게 선택한다. 실제 생수의 선택 폭은 넓고도 다양하다.

그러나 차에 알맞은 물을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다. 왜냐하면 신선한 물을 구하기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수가 오래된 물이기 때문이다. 대개 유통 생수는 채수한 후 15일에서 1개월이 지난 것이거나 심한 경우엔 2~5개월이 지난 생수가 유통된다. 그러므로 샘물을 떠 용기에 담은 후 대략 2~3일 만에 공수될 수 있었던 명대나 송나라, 고려 시대나 조선 전 후기에 비해 신선한 물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므로 어쩌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차에 알맞은 샘물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청복(淸福) 중에 청복이라 하겠다. 더구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동이는 천연 소재이지만 현대에 유통되는 물통은 플라스틱 소재이다. 편리할 수는 있지만, 싱그러운 물의 정기를 보존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고 기세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묘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자신이 이런 물을 감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다. 아니면 좋은 물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인데, 이는 도시에서도 오묘한 차의 청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㉘

1. 중국 선종의 기원이 되는 인물은?
① 남전 ② 달마 ③ 마조 ④ 임제 ⑤ 혜능

해설 : 중국 선종의 기원이 되는 인물은 초조달마대사이다. 달마 이외에 시대순으로 육조혜능, 마조도일, 남전보원, 임제의현 순이며, 선종 내부에 동명이인들도 있으나 이들이 대표적으로 유명하다.

2. 아비달마 불교의 실유사상을 타파하고 ‘중도의 진리’를 주장한 인물은?
① 용수 ② 달마 ③ 우팔리 ④ 수자타 ⑤ 현장법사

해설 : 아비달마 불교의 실유사상을 타파하고 ‘중도의 진리’를 주장한 인물은 용수이다. 그의 대표저작인 〈중론〉은 아비달마 불교의 실유사상을 공사상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있으며, 〈중론〉의 제목 명은 공사상에 입각한 중도의 입장을 논술한다는 의미이다.

3. 중국에 최초로 전해진 불교 경전은?
① 화엄경 ② 법화경 ③ 유마경 ④ 반야심경 ⑤ 사십이장경

해설 : 중국에 최초로 전해진 불교경전은 가섭마등, 축법란이 번역하였다고 전해지는 〈사십이장경〉으로 알려져 있다. 번역자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사십이장경〉의 전래가 빠른 것은 사실이다.

4. 『중론』, 『백론』, 『십이문론』을 번역하여 삼론종을 성립시키는 데 공헌한 사람은?
① 현장 ② 안세고 ③ 백법조 ④ 축법호 ⑤ 구마라집

해설 : 〈중론〉, 〈백론〉, 〈십이문론〉은 용수 및 용수의 제자가 제작한 논서들로 중관학파에서 중요하게 취급한 중관학 논서이다. 중국에 중관학파의 논서를 전한 인물은 구마라집으로 중국에서는 구마라집이 번역한 이 세 논서를 중관학파의 이명(삼론종)으로 사용하였다.

5. 당나라 현장법사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① 법상종 ② 서유기 ③ 법화경 ④ 역경성자 ⑤ 대당서역기

해설 : 삼장법사 현장은 법상종의 논서인 〈유가사지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중국 당나라에서 인도로 유학하였고, 이후 중국에 돌아와 자신이 인도에서 듣고 겪은 바를 엮어 〈대당서역기〉라는 책을 남겼다. 또한 법상종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교경론을 번역하여 그를 역경성자라고도 하며, 현장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소설이 〈서유기〉이다. 〈법화경〉은 현장과 쌍벽을 이루는 역경승 구마라집의 번역으로 유명하다. 현장은 〈법화경〉을 번역하지 않았다.

6. 중국 천태종과 관계가 깊은 인물은?
① 도선 ② 도작 ③ 혜능 ④ 지의 ⑤ 현장

해설 : 천태종의 개창조는 천태지자대사 지의이다. 그 외 각각은 율종의 도선, 정토종의 도작, 선종의 혜능, 법상종의 현장이다.

7. 중국 선종의 다섯 종파인 오종(五宗)이 아닌 것은?
① 임제종 ② 운문종 ③ 달마종 ④ 위앙종 ⑤ 조동종

해설 : 중국 선종은 육조혜능 이후 오가칠종으로 분화된다. 문제에서 오종이란 오가칠종에서 오가를 말하는 것으로 오가는 위앙종,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이다. 달마종은 선종 전체에 대한 이명, 혹은 일본승려인 능인이 임제종 양기파의 한 갈래로 세운 종파를 말한다.

8. 석가모니부처님 당시, 출가수행자들의 의복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부잣집에서 좋은 옷을 얻어 입었다.
② 입던 옷이 조금만 낡아도 버리고 새 옷으로 입었다.
③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옷을 전혀 입지 않았다.
④ 옷을 시장에서 사 입기 위해 항상 돈을 가지고 다녔다.
⑤ 다른 사람들이 입다가 낡고 더러워져 버린 옷이나 시체를 싸다 버린 옷을 꿰매고 빨아서 입었다.

해설 : 부처님 당시의 출가수행자들은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소유만이 인정되었다. 특히 옷과 관련해서는 분소의라하여 다른 사람이 버린 옷, 장례 때 쓰인 시체와 관련된 직물만을 사용하여 만든 옷을 권장하였다. 그럼으로 좋은 옷, 새 옷 등을 멀리하였으되, 옷을 전혀 입지 않지는 않았으며, 이는 다른 종교인 자이나교의 전통이다.

정답 : 1. ② 2. ① 3. ⑤ 4. ⑤ 5. ③ 6. ④ 7. ③ 8.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⑬ 수덕사 반결제 산행과 승보공양 '메밀국수'

▶한줄 요약
봉사자를 꾸리고, 김치를 담거나 재료 손질과 국수를 마련하는 시간까지 반결제 산행의 일부다. 반결제 산행 동참자들은 산행을 마친 뒤 먹는 시원한 메밀국수 공양의 맛을 잊지 못해 매년 산행을 더욱 기다리기도 한다.



반철 산행 '국수 한 그릇'에 정진의 힘 얻다

분명 거센 장맛비가 예고된 날이었다. 일 년 중 가장 길고, 지루한 장마가 그렇게 시작될 거라고. 올해로 18회를 맞는 덕숭총림 수덕사 반결제 산행과 승보공양 의식은 그처럼 비와 함께 시작될 참이었다.

하지만 당일 아침 세상은 맑고, 밝고, 또 눈부셨다. 전날만 해도 하늘을 꽉 채우던 먹구름 떼마저 감쪽같이 사라진 아침이었다.

오래전 광포한 개발주의의 폭풍이 저 내포 가야산을 무참히 허물려 하던 때. 거대한 산과 그 안의 뭇 생명, 그 산의 품에서 살아 빛나던 문화유산을 지키겠노라 모두 함께 길을 나선 것이 수덕사 반결제 산행의 시작이다.

스님과 재가자 수백 명이 함께 걷는 여름날의 하루. 그 길에 모진 빗줄기가 쏟아질 것이라 했는데, 그 아침은 그저 청명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순간, 우리는 '가피'를 떠올린다.


봉사자들은 손발을 맞춰 700여 분량의 국수를 마련한다.


동참자들은 보원사지 한켠에서 국수로 힘을 얻는다.


시원한 국물에 열무김치, 오이채, 무절임, 김가루까지 더한 풍성한 국수에 넉넉한 웃음이 더해졌으니 그 맛이 좋지 않을 리 없다.

안거의 시간

지난 5월 22일, 전국의 총림과 선원에서 일제히 하안거(夏安居) 결제를 알렸다. 선원에 든 수행자들은 8월의 백중까지 3개월에 걸쳐 용맹정진에 들어설 것이고, 재가불자들은 그 치열한 참구(參究)의 계절을 함께 지키며 응원할 것이다.

'안거(安居)'

현대까지 이어지는 안거의 전통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출가수행자들은 한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인도의 길고 긴 우기와 자연환경은 수행 공동체의 규칙마저 바꾸어 놓았다.

땅속에 숨어있던 숱한 동식물이 가쁜 숨을 내쉬며 지상의 세계로 쏟아져 나오는 여름. 무심코 내딛는 걸음만으로 살생을 범하기 쉬운 그 계절에 부처님과 제자들은 잠시 유행(遊行)을 멈춘다. 뭇 생명을 보호하고, 질병이 돌기 쉬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선택. 부처님은 자신의 발아래 스러질지도 모를 작은 생명을 위해 위대한 여정을 스스로 거두었다.

1년 중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리를 참구(參究)하고, 수행에 전념하는 '안거'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방불교권에서는 기후적 여건에 따라 여름 석 달과 겨울 석 달을 각각 하안거와 동안거로 나누어 진행한다. 그 시간 동안 스님들을 비롯해 외부인의 산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오롯이 수행 정진에 힘을 쏟는 것이다.

스님들이 결제에 들어설 때 외우는 〈범망경 보살계본〉의 10가지 큰 계율과 48가지 계율은 안거의 목적이 그저 개인의 깨달음에 있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덕과 지혜를 닦아 끝내 중생을 위한 자비행으로 회향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 안거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머무름의 이름이다.

반결제 산행의 시작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삿되지 않도록 분투하는 시간. 하루의 어느 틈새에 깨달음을 향한 단초가 숨어있을지 모르기에 안거 중의 모든 날은 귀하고 귀하다. 그런 하루를 오롯이 꺼내어 수행자와 대중이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수덕사의 '반결제산행 및 승보공양' 의식은 지난 2004년, 내포 가야산이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하며 그 태동을 시작한다.

북으로는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 서쪽으로는 서산의 개심사, 동으로는 예산 가야사지(현 남연군묘), 남에는 예산 수덕사. 그 외에도 100여 개의 유서 깊은 폐사지와 1700년 한국불교의 보물, 옛 선승들의 전설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이 땅의 영산.

어디 그뿐이랴, 이 우직한 산은 조선 독립운동과 동학농민운동 등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살아온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이러한 가야산 일대의 문화재에 관한 조사, 생태계 보전의 대안도 없이 관광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산허리를 자르는 관통 도로와 고압 송전탑, 골프장 건설 계획 등이 난립하던 때. 수덕사를 비롯한 가야산 일대의 불교계와 시민단체는 '가야산 지키기 연대'를 조직하고, 본·말사와 전국 각지에서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모여 산길에 올랐다.

가야산의 훼손을 멈추고, 생태와 문화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 모두의 간절한 바람을 동력으로 함께 기도하고, 걷기 시작한 것이 반결제 산행의 시작이다.

오래전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들이 뭇 생명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걸음을 멈추었듯, 같은 이유로 다시 일어나 걷는 여름. 그렇게 과거와 현재, 내일은 하나의 길로 이어져 간다.

길에서 길로

지난 2007년 가야산 연대가 첫 산행을 시작하던 날, 사람들은 가야사지에서 보원사지까지 이어지는 옛 순례길을 '백제의 미소길'이라 부를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3년 뒤, 마침내 국토해상부는 길이 10.059km에 이르는 관통 도로 구간이었던 그곳을 생태탐방로 '백제의 미소길'로 공식 변경·승인했다. 기존 도로보다 겨우 십여 분을 단축하기 위해 산허리를 자르고, 삼존불과 겨우 100m 떨어져 있는 곳에 터널을 뚫으려 한 계획을 막아낸 것이다. 이제 가야산에는 내포불교순례길을 비롯한 다양한 생태문화길이 조성되어 사람들과 함께한다.

유난히 청명했던 산행의 날. 대중들은 수덕사 큰스님들의 덕담과 법문을 들을 뒤, 남은 하안거의 무탈한 해제를 기원하며 승보공양 의식을 올렸다.

마침내 수덕사 방장스님을 필두로 가야사지를 출발하는 시간. 잣나무 길과 퉁퉁고개, 휴양림 구간을 거쳐 보원사까지 총 7km 구간의 백제의 미소 길을 걸으며 모든 생명의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제는 모두의 축제이자, 수행의 자리가 된 이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통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산행을 마친 뒤 먹는 시원한 메밀국수 공양이다. 매년 반결제 산행에 동참하는 이들은 이 국수의 맛을 잊지 못해 산행을 더욱 기다리기도 한다고.

수덕사 신도회는 이날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봉사자를 꾸리고, 김치를 담거나, 재료 손질과 국수를 마련하는 시간까지 반결제 산행의 일부인 셈이다.

700여 명 분량의 국수를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매년 함께 한 터라 이제는 눈만 마주쳐도 손발이 척척 맞는다. 7월의 한낮에 더운 불 앞에서 연신 국수를 삶아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봉사자들. 시원한 국물에 열무김치, 오이채, 무절임, 김가루까지 더한 풍성한 국수에 넉넉한 웃음이 더해졌으니 그 맛이 좋지 않을 리 없다.

7월 햇살 아래 2시간여의 산행을 마치고 온 스님들과 재가자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저 푸르른 초원 위에 남은 보원사지의 신비로운 풍경. 그리고 오래전 가야산 연대의 시작을 이끈 정범 스님(보원사 주지)의 환한 웃음이다.

이제 다시 산문을 넘어 선방으로 향할 스님들도, 그 뒤를 따라 함께 걷던 사람들도 그 초록의 풍경 속에서 땀을 식히고 다시 길을 떠날 힘을 얻을 것이다.

이날 법회를 이끌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배웅하던 정경 스님(간월암 주지)의 인사에도 그 마음은 담겨있다.

"이날을 통해 가야산을 지키는 마음도, 또 다가올 백중과 안거에 들어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미도 다시 새기게 됩니다. 다들 맛있게 드시고 남은 하안거도 건강하게, 힘을 내어 정진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수는 단순하지만 언제나 스님들을 웃게 하는 별식이니까요."

산은 생명, 우리는 그 품에서 무한한 생의 기운을 빌어 살아간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머무는 것, 그리고 걸어야 할 때 망설임 없이 걸음을 내딛는 시간. 반결제 산행은 그렇게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뜨거운 회향이다.

〈작가〉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바깥으로 공부해서는 벗어날 수 없으니 근본에다 되놓으라는 것이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아야 공부하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라기보다도 인생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을 근원으로 해서, 또는 우리 미생물로 하여금, 그 인연에 따라서, 인과로 인해서, 정자와 난자의 뜻을 받아서 살과 몸과 피와 뼈를 빌려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고통 속에서, 고통이라고 하기보다 인간 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면 인간이 돼 가지고도 고통스럽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왜 그렇게 각본대로 나오는가? 인간은 왜 돈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는가? 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왜 마음대로 되질 않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연에 따라서, 인과로 인해서 몸을 받았다면 엄마 아빠라는 인연도 여러분 차원에 따라, 여러분과 똑같은 차원으로 인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든 중생들도 수십억 마리가 여러분의 인연에 따라서, 인과로 인해서 여러분 몸속에 작은 별들처럼 회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생명들이 회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움죽거리는가 하면, 회전을 하는 그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바로 그 생명들의 집이죠. 그런데 그 생명들이 한데 모여서 마음을 내고, 마음을 내기 이전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내며 회전을 하는 삼합이 바로 공(空)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천차만별로 여러분의 머리를 때리고 나옵니다.

그전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팔만 사천 번뇌가 들락거린다."라고요. 여러분이 한 생각을 제대로 못 하면 악의 인연으로 하여금 바로 팔만 사천 번뇌가 털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고, 여러분의 한 생각이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루어져 자유스럽고 여여하다면 바로 그 털구멍을 통해서 팔만 사천의 부처가 들락날락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또 자유스러운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뚱이 속에 어째서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모여서 회전을 하고 있는지, 또는 역력하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머리로, 두뇌로부터 사대로 각각 알려 주는 통신! 그 통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 내는 게 있고 감각 촉각 시각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다 같이 미생물에서부터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쫓고 쫓기고, 부모를 잃고 울고, 자식을 잃고 울고, 서로 울며불며 다지고 쫓기며 인간까지 됐으니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수억겁의 생을 거쳐 오면서 살아나오던 습의 인과가 바로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인연을 따라서 모두 들어 있으니, 고(苦)가 있다고 '나는 피해야겠다.' 이럴 생각은 아예 마세요. 왜?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어디로 피해서 갑니까?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인연에 따라서, 만약에 악 조건의 인연이라면 그 악의 무리의 생각이 떠올라서 그대로 악 조건으로 길을 갈 것이고, 선의 조건이 삼분의 이가 된다면 바로 선의 조건으로 여러분의 두뇌를 통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니 천차만별 인연의 소치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각본대로 솔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본대로 짊어지고 나온 이 몸뚱이가 인연의 소치라면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인연의 소치는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생각하고 행한 그 자체가 각본대로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 감겨서 현실에 자꾸자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행동하고 가는 것은 미래에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도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도 공해서 없다' 이렇게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속에 수없는 자연인으로서 갖가지로 저지른 그 인연의 소치가 지금 생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마음들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 쓴 대로 인연에 따라서 나한테 온 것이니까 그 마음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녹여라. 거기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끄달린다면 그 인과 속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뚱이 속에 다 가지각색으로 각본대로, 자기 한 대로, 저지른 대로, 그 의식대로 감추어진 것이 그대로 그냥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바른쪽 발은 이만하고 (양팔을 벌려 보이시며) 왼발은 요만하다면 어떻게 걸음을 걷고 다니시렵니까? 우리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아주 짧은 그런 형국이요, 눈도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귀도 한쪽 귀만 있지 다른 한쪽 귀는 없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살기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선과 악이 모조리 내 몸 안에 들어 있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나온 데다가 되놓으면, 맡겨 놓으면 바로 그것은 카세트에 앞서 감긴 것이 다 지워지고 현재에 넣는 것만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연방 고정된 관념이 없고 고정된 행이 없고 생각도 고정된 게 없으니, 생각나는 대로 거기 놓게 되면 담겼다 없어졌다 담겼다 없어졌다 하니 항상 그릇은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야만이 기계를 돌려도 그렇고, 맷돌질을 해도 그렇고, 의정을 내도 그렇고 헛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방편입니다. 모든 게 '공했다' 이런 말을 하지마는 우리는 실지다, 실지가 아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 사는 자체는 그대로 실지입니다.

파리더러 물어보세요. 네 배 속에 뭐가 들었느냐고요. 그러면 아마도 파리는 자기 배 속에 구더기가 들었다는 걸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더기가 들어 있는 걸 역력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파리가 못 보는 거나 우리가 지금 우리 배 속에 무엇을 넣고 있는지, 우리가 인연 따라 인과를 받아서 여기까지 배 속에다 무얼 넣고 왔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 몸이 나온 것이 화두요, 이 몸이 나왔기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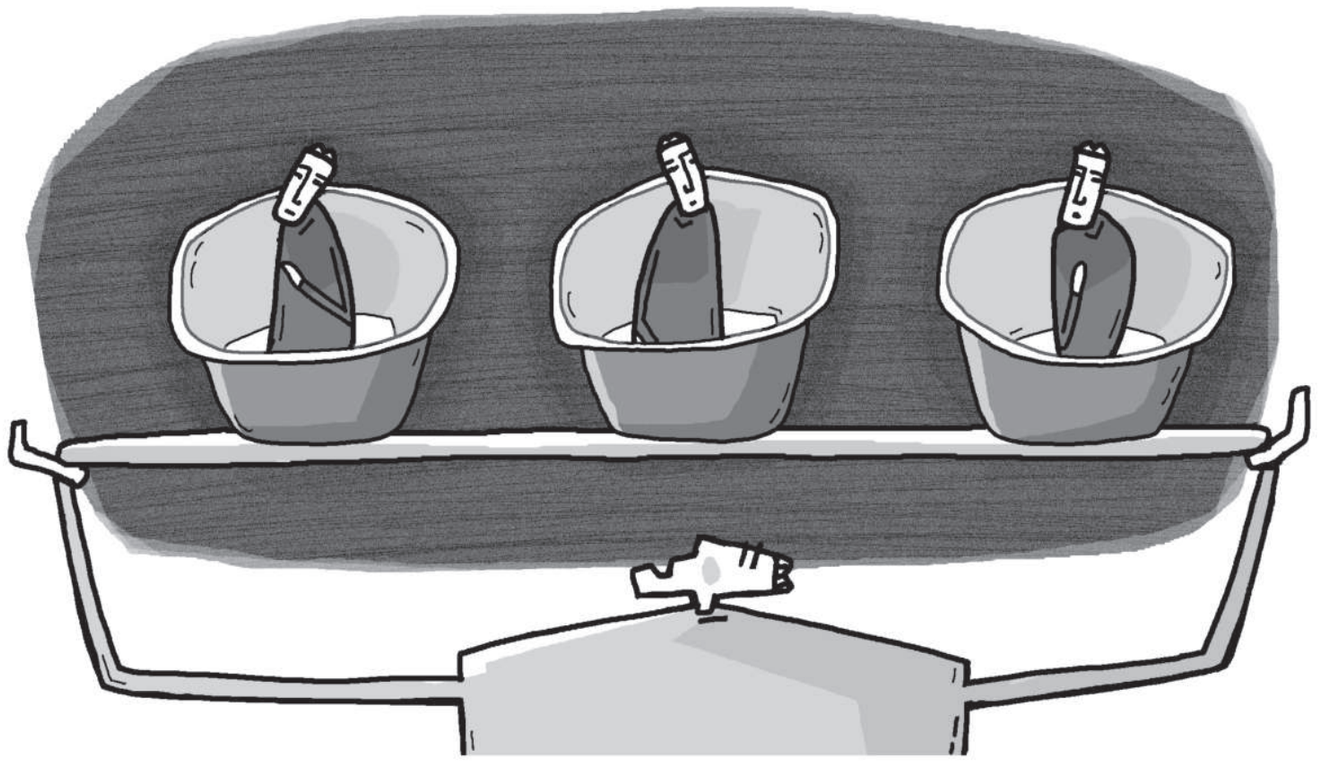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다면 고가 어딨습니까

☞ 19면에서 계속

때문에 우주가 있는 것을 알고, 부처가 있는 것을 알고, 잘된 걸 알고 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 될 가능성이 100% 있는 고차원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파리가 그것을 알고 "내 배 속에 구더기가 들었소." 한다면 그 파리는 자기가 과거에 구더기였기 때문에 자기 배 속에 구더기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전자에 미생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미생물이 바로 내 몸속에 세포를 통해서 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차적으로 더 묘한 것은 자기가 저지른 소치로 인해 천차만별로 인연 따라 내 몸속에 들어서 인과로서 솔솔 나오니 살아나가는 데 앞길을 막는 것도 그렇고, 병고가 있는 것도 그렇고, 우환이 있는 것도 그렇고, 안되는 것도 그렇고 잘되는 것도 그렇고, 똑똑한 것도 그렇고 똑똑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바로 그 마음들로 인해서 갖가지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즐겁게 해 주는 것도 거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바깥으로 공부해서는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가 없으니,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되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거니와 대신 자 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수도 없고, 대신 똥 눠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해 드릴 수 없는 문제가 다섯 가지나 되죠.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만이 똑똑히 가르쳐 드릴는지 그것이 참 의문입니다. 아는 것은 내 소견이지 여러분 소견도 아니고, 여러분이 각자 안다 모른다 하는 그 점도, 여러분의 소견이지 내 소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문제,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는 문제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인간으로 와서는 인간 자체에도 끄달리지 말고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회전하고 돌아다니는, 지금 합일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몸체에 있는 생명체들이 투표를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악의 쪽에서 삼분의 이가 나왔고 선의 쪽에서 삼분의 일이 나왔다면 전부 악 조건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선의 쪽에서 삼분의 이라면 또 선의 쪽으로 많이 따르죠. 그러니 우리 마음이 선이고 악이고 간에 몽땅 벗어날 수가 있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음의 선장으로 뽑혀 나온 여러분 각자가 첫째, 진짜로 믿으면서 물러서지 말아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고집멸도 사제법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고가 어딨습니까? 만약에 내가 몽땅 공한 거를 알고, 배 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도 다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고, 이 세상도 찰나찰나 돌아가고, 우리 지금 24시간 살아나가는 것도 찰나찰나 돌아가고 변화되고 돌아가는 걸 아신다면 고는 없는 것입니다. 찰나찰나 변하는데 어떤 거 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부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생각을 제대로 못 하면 악의 인연으로
팔만 사천 번뇌가 털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고
여러분의 한 생각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루어져 여여하다면
바로 그 털구멍을 통해서 팔만 사천 부처가 들락날락한다.

부처가 왜 없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너무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부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데 왜 사랑이 없다고 하는가? 사랑하기 이전에 바로 내 아픔이요, 내 몸이요, 내 자리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안 한다 하는 언어가 붙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게 자비심이라.

여러분은 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보고 절을 하실 때 어떠한 생각으로 절을 하시는가요? 부처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컵도 바로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한 겁니다. 저 부처님도 (등 뒤의 부처님을 가리키시며) 이 세상에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생각으로서의 마음이 없다면 저 부처님을 모실 수도 없죠. 부처님은 너무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와도 둘이 아니요, 변소에 가도 둘이 아니요, 어딜 가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그렇게 가깝게 두고 있으며, 위 속눈썹 아래 속눈썹이 한 찰나에 깜짝거리듯이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게 그렇게 같이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부처님도 삼천 년 전의 부처님만 계시다고 생각지 마시고 삼천 년 전만 아니라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도 부처님은 계셨고, 지금도 부처님은 계시고, 미래에도 부처님은 영원히 끝 간 데 없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있는 한, 생명이 살아 있는 한, 또 생명이 이렇게 푸르르게 생동력 있게 움죽거리는 한, 아마도 그 뜻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말세니 말세가 아니니 운운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린 영원히 물 흐르듯이, 발 없는 발로 손 없는 손으로 어디 안 닿는 데가 없고 아니 딛는 데가 없이, 내 몸 아닌 게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이는 만날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해.' 이러겠지마는 이 뜻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을, 백 가지 천 가지 아는 거보다 한 가지 실천하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줄 없는 줄, 이 우주간 법계의 법망에 의해서 저 샛별도, 또 저 은하계의 별성도, 저 북두칠성의 인연도, 우리 사성의 별들도, 사생의 뜻도, 사천 세계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 마음과 연관성이 있어서 항상 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 남이 모른다고 해서 모를 리 없으니, '남 모르게끔 행동해야지.' 이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생각을 했다면 벌써 우주간 법계로 아니 퍼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한 것에 걸리지 마시고, 모든 생각이 나온 데가 어딘가? 이것만 아신다면 참 다양하게도 천차만별로 인과를 지어서 이 몸을 받고 나와 고생을 하고 고에서 허덕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외부의 모든 것을 보세요. 우리가 지수화풍의 고향인가 하면 지수화풍이 나이고, 내가 바로 지수화풍의 고향인가 하면, 집인가 하면 집이 바로 이 세상의 바다와 같고, 이 세상 전체가 지수화풍 빼놓고는 그릇이 될 수가 없으니 흙과 물은 어머니와 같고 바람과 태양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이 없이는 한시도 못 살죠. 하다못해 모르는 무정물도, 저 나무들도 공기를 흡수해서 간직해 뒀다가 인간에게 보급하고 인간은 또 그 나무들한테 영양을 보급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서로서로가 살고 있습니다.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내 몸속에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아이구, 병이 들었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진 병이 들었을까?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이렇게 가난이 오고 괴로움이 올까?' 하시는데 가지각색으로 오는 그 고통, 외로움, 고독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잘 아셔야 할 겁니다.

수많은 생을 거듭거듭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아는 게 많겠습니까? 그 모든 체험을 한 장본인이 바로 참 여러분일 겁니다. 그러니 딴 데서 보배를 찾지 말고 내 집 속에 고귀한 보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 있는 것인데 뭘 찾을 게 있습니까, 본래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천차만별로 지은 인과로 인해 겪는 화탕지옥이나 무슨 지옥이나 또 업보나 병고 액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인연 지은 대로 배 속에 다 들어 있으면서 자꾸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원수 갚으러 나왔지, 원수 갚으려고 인연이 됐지 그게 만나지 않았으면 인연이 안 되지. 아, 저쪽에서 따귀를 안 맞았으면 인연이 안 됐고, 따귀를 안 때렸으면 인연도 안 됐죠. 따귀를 한 번 맞고서도 '아! 이것이 나의 수행이요, 또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놨으면 또 인연이 안 될 건데. 때리러 가서 또 때리고 또 맞고, 때리고 맞고 하니까 그것이, 때리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깐 그것이 또 인연이 되고 또 뭉치고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한 치도 속임 없이 여러분 몸뚱이에 같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몸뚱이 속에 수많은 인과를 얻어서 인연에 따라서, 인연의 소치로, 자기의 각본대로, 연예인들이 각본대로 연기를 하듯이 그저 속에 들어 있는 대로, 자기가 한 대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탓입니까.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자기 탓입니다. 남이 나를 못살게 굴어서 죽였다 할지라도 자기 탓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왜? 오히려 그 사람을 수고를 시켰으니까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자체로써 나를 다지기 위한 내 주인공 참부처님 자성신이, 나를 다지기 위해서 둥글게 쳐 주시는 그런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사람을 수고만 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앞에 닥쳐오는 그 모두를, 내가 죽어가고 아프고, 병신이 돼 가고 가난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감사하고, 당신은 공했으니까 그저 죽어야 사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만이 여러분한테 고라는, 업보라는 그 누명을 벗겨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곧이듣고 자꾸 흔들리고 속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갈 것이고 어떠한 자갈밭이라도, 어떠한 가시밭이라도, 어떠한 낭떠러지라도 서슴없이 떼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야 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7월 17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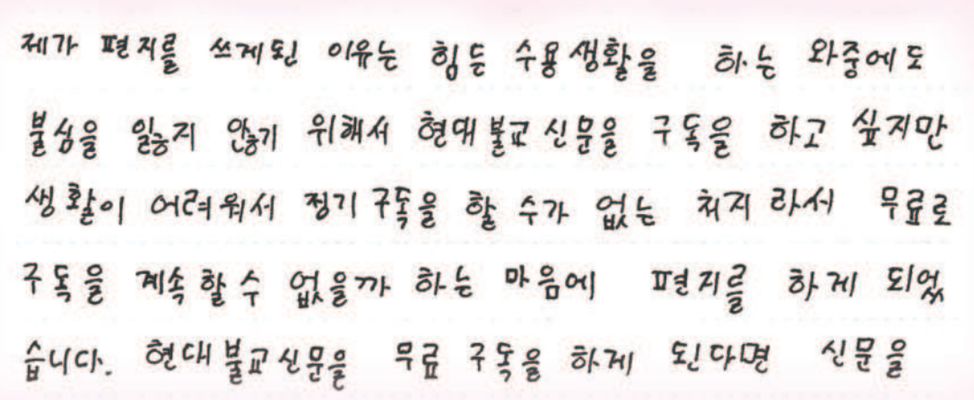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⑭ 무시당할 나도 없고 무시할 너도 없다

나는 나를 뭐로 보고 있나?

책을 읽다가 문득 예전에 보았던 극락과 지옥의 젓가락 그림이 떠올랐다. 극락과 지옥 모두 집도 옷도 음식도 같고, 1m나 되는 긴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규칙도 같은데, 똑같은 진수성찬의 밥상에서 지옥의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채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반면, 극락의 사람들은 건강한 얼굴빛으로 서로를 챙기며 즐겁게 식사하는 그림이다.

지옥의 사람들은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자기 입에 넣으려고 팔을 굽히고 목을 길게 빼지만 음식을 입에 넣을 수가 없다. 남의 젓가락 끝에 달린 음식을 먹으려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1미터의 젓가락은 주변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된다. 그야말로 지옥이다.

그러나 극락의 사람들은 음식을 집어 자신의 맞은편 사람 입에 넣어준다. 서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정겨운 대화를 나눈다.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니 젓가락이 아무리 길어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 나의 참생명은 부처님 생명이고 우리는 한생명이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내게 베푸는 것이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길이다. 진정한 나를 위하는 길은 언제나 먼저 베풀고 또 베푸는 것에 있다.

오늘도 만나는 인연들에게 다정한 눈길과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고, 오직 '주는' 마음으로 살면서 보시 공덕을 부지런히 짓자고 발원하지만, 마음은 시시각각 요동친다. 며칠 전 〈금강경〉 공부 시간에 혜선(가명) 님은 자신이 한 말을 가족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 화가 났던 경험을 공유해주었다. 그 순간에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신나게 말을 꺼냈죠. 하지만 제 말은 공기 중에 흩어져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은 스마트폰에 몰두해 있었고, 아이는 TV만화를 보느라 정신이 팔려있었죠. 저는 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단순히 그 순간만의 감정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나? 아이까지 내 말을 안 듣네. 아이도 엄마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이 나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들 땐 제일 먼저, 내가 나를 뭐로 보고 있는지부터 점검해보는 게 필요하다. 스스로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 받을 생명인가? 부처님께서는 나를 부처님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남이 나를 과연 무시할 수가 있나'라고 자문해

스스로 '부처님 생명'임을 깨닫는다면
요동치는 마음 가라앉히고 솔직해져

보아야 한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스치면 '(남이 아니라)내가 나를 무시 받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부터 참생명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차리고, 나의 참생명은 부처님 생명이라고 불러주시는 부처님의 소리를 얼른 들어야 한다. 그게 바로 나무아미타불 염불이다. 그렇게 자신 안에서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시당했다는 어두운 마음에서 빠져나와, 그저 솔직하게 '내가 말하고 있는데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서운했다'고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 역시도 내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그분의 생명은 부처님 생명이니까! 무시당할 나도 없고 내가 무시할 수 있는 너도 이 세상엔 없다고 하신 게 부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한탑 스님께서는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이라는 10글자로 요결해주셨다. 이걸 전해주신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람이 없다.

혜선 님은 참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염불한 덕분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의 서운함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했고, 그날 이후 서로의 말을 더욱 귀 기울여 들으며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했다고 훈훈한 후일담을 전해주었다. "그날의 작은 에피소드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어요"라고 말하며 웃으시는 모습이 고왔다.

언제 어떤 경우에도 부처님의 한결같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힘은 평소에 경전을 수지독송하며 정진하는 데서 나온다고 한탑 스님께선 늘 강조해주셨다. 〈금강경법문〉에서 "칼은 제 몸을 상하게 하는 숫돌에 대고 갈지 않으면 날이 서질 않습니다. 무딘 칼이 거친 숫돌 덕분에 날이 서듯이 복을 닦고 지혜가 밝아져 본래부터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려면 나의 환경이 거칠어야 됩니다. 내 환경이 순리대로 펼쳐지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면, 지혜도 복도 닦을 수가 없고 오히려 욕망덩어리인 중생의 탐심과 성내는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 밖에는 안되니, 오늘도 거친 환경이 펼쳐지고 어둡고 망령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얼른 '나무아미타불!'로 항복 받으며 부처님 생명으로 살아가십시다"라고 법문하던 스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나무아미타불!

(한탑스님의 〈금강경법문〉 공부문의
bowon9@hanmail.net)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⑳ 척추 질환과 MRI검사

비싸고 어려워도 척추 질환엔 MRI검사를

목·허리의 통증, 팔·다리 저림 등으로 척추 전문 병원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자기공명영상 검사(이하 MRI)를 권유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바로 찍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일반 엑스레이(X-ray)를 찍고 가벼운 치료부터 시행하다가 효과가 적어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혹은 초기라도 마비가 존재하는 등 증상이 심해 빠른 정밀 진단을 요하는 경우에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MRI는 비싼 고가의 검사이고, 찍는 시간도 최소 30분 정도는 걸리며, 큰 기계의 좁은 통 속에서 소음을 견디어야 하는 등 꼭 찍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가 많다.

MRI 원리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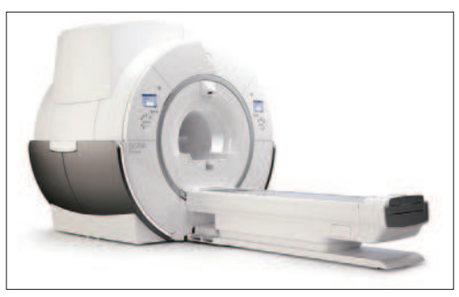
MRI 기계는 크고 강한 자석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 크고 강한 자석 속에 우리 몸을 넣고 강한 자기장을 형성하면, 우리 몸 각각의 구성 조직(뼈, 혈액, 혈관, 근육, 피부, 신경, 각 장기 등등)에서 불규칙적으로 돌고 있는 물 분자들이 순간적으로 한 방향으로 정렬된다. 그리고 그 정렬된 우리 몸 각각의 조직 물분자가 다시 원래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 조직마다 복귀하는 정도의 차이를 영상화 시킨 것이 MRI의 원리이다. 매우 강한 자기장을 형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계가 매우 크고, 소음도 유발하며,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리고 강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몸에 자석에 붙는 금속이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다.

1.5T, 3.0T는 무엇인가?

'T'란 '테슬라'라는 자기장의 단위이다. 일반적인 병원에서 사용되는 MRI는 1.0~3.0T이며, 보통 숫자가 높을수록 영상이 선명하고 촬영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척추 질환에서 진단을 하는 데는 1.5T만 넘어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으나, 3.0T인 경우 촬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환자들은 선호하는 편이다.

MRI는 왜 그렇게 비쌀까?

척추질환에 대한 MRI 검사 비용은 보통 부위 당 40~80만원 정도로 매우 고가의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이유로는 MRI검사 기계 자체가 수십억 원 정도로 매우 고가이다. MRI를 찍기 위한 인력도 여러 명 필요하며, 주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세밀한 정식 진단이 필수이기도 하다.


MRI 기계

CT는 또 무엇인가?

CT는 특정 부위에 대해 수많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컴퓨터로 조합해 단면도를 얻는 영상이다. CT와 MRI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검사는 장단점을 달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CT는 주로 뼈, 석회화 된 조직 등 딱딱한 조직을 보는데 매우 유용하고, MRI는 근육, 신경, 추간판 등 연부 조직을 보는데 유용하다. 일반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에서는 보통 신경이 눌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MRI가 진단 가치가 높은 경우가 더 많다.

조영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물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종양이나, 혈관 질환, 염증의 경우 혈관에 의료용 조영제를 주입하여 MRI를 검사하게 된다. 종양은 자라는데 많은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므로 혈관이 매우 발달하게 되며, 염증은 우리 몸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혈관 증식을 일으키므로, 또, 혈관 기형 등의 질환은 그 자체를 관찰하기 유용하므로, 조영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에서는 조영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편안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척추 질환에서 MRI는 꼭 필요한가?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임상 증상과 기본 검사인 엑스레이만으로 대부분의 퇴행성 척추 질환은 진단을 예측하고 초기 단계의 치료를 시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경 압박의 정도를 판단하거나, 정확한 병변의 확인이 필요한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등의 시술이 필요한 경우나, 더 나아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혹시 모를 골절, 염증성 질환, 종양의 진단 등을 위해서는 MRI검사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척추 질환의 접근에 MRI가 초기부터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보험이 되는가?

퇴행성 척추 질환은 매우 다빈도 질환이고, MRI의 시행은 진단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모든 환자에게 MRI가 보험이 되지는 않는다.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경우로는 골절, 염증, 종양, 혈관 질환 등의 질병인 경우이거나, 마비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 MRI의 의료 보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MRI 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최홍준
거인병원 신경외과 척추센터장



전법 일기

동아리 고난, 내리사랑으로 극복

선배 자비행은 동아리 전통됐다

인제대 중앙동아리로 불교 동아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2019년, 첫 시련이 닥쳤다. 2018년도부터 동아리 회원들의 동아리 행사 참여 증진을 위해 정기법회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저녁공양을 제공하며 법회에 오는 재미를 붙여봤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이런 좋은 취지를 지역 사찰 스님들께서도 알아주셔서 소정의 지원을 해주시기도 했다.

이 같은 루틴들이 만들어지던 어느 날, 2019년 개강법회에서 일이 터졌다.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많은 인원의 동아리 회원들이 법회에 참석했지만, 정작 회장인 필자는 몸이 좋지 않아 임원진에게 저녁공양을 부탁하고 자리를 비우게 됐다. 이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회장으로서 경험이 부족했던 탓인지 의사전달이 잘못돼 해당 식사 자리에서 중앙동아리 등록비로 학교에 납입해야하는 예산까지 모두 사용하게 됐던 것이다. 당장 다음 주까지 내야하는 비용까지 써버리게 되니 당황스러움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결국, 이런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전 동아리 환경 조성에 곁에서 도움을 주셨던 동아리 선배님에게 연락했다.

어떻게 헤쳐 나가야할 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드렸던 전화인데, 선배님은 긴 고민 없이 "남주야, 걱정하지마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라는 말을 해주셨다. 그리고 다른 선배님들에게도 연락을 취해 돈을 모아 동아리 통장에 입금을 해주셨다. 동아리 재정 관리를 잘못한 후배 회장을 나무라도 모자란 상황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선배님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막 전역한 복학생이었고, 선배들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음에도 크게 마음을 내준 것이다. 아마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후배 회장에게 안타까움을 느껴 선배님들도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닐까.

자비(慈悲)에서 '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에게 낙(樂)을 주는 것이고,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중생의 고(苦)를 없애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님들이 행동은 자비의 실천이었다. 이를 통해 필자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행이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젠 5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머리와 마음에 단단히 기억돼 있다. 나 역시도 꼭, 어떤 상황에 후배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흔쾌히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최선을 다해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다.

인제대 불교학생회는 선배에서 나, 나에게서 후배, 그리고 후배의 후배로 내리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작은 해프닝에서 시작된 자비행은 한 동아리를 지금까지도 대를 이어 '자비'로 장엄하고 있다.



장남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 부산지부 회장



송마나의 **시절인연**

'우리'란 말에는 '佛性'이 담겼다

독일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내 좌석은 창문 쪽이라 미리 앉아 있는 옆 여행객이 일어나 들어가라는 제스처를 지었다. 나는 그에게 목례를 하며 자리에 앉았다. 서로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서는 여행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지만 나와 그는 말없이 하늘을 날았다.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옆자리에 앉은 것도 인연인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말없이 가야 하는지,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내가 먼저 옆에 앉은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나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다. 나는 영어가 서툴고, 독일에서 환승하여 바르셀로나로 가야 하는데 환승시간이 짧아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내 티켓을 보여 달라더니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승무원을 불러 유창한 독일 말로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알려 주었다. 지금까지 냉랭했던 사람들이 가깝고 친근한 사이가 되어 베를린 공항에서 헤어질 때는 환하게 웃으며 서로의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다.

그 젊은이와 나는 우리가 된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 아니다. 우리는 객체적인 관계를 떠나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우리란 타자성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타자성이란 내 인식이나 이해의 바깥에 있는, 알 수 없는 것,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게 된다. 너는 이제 타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존재요, 나는 너의 존재가 된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이다.



그림 · 최주현

꽃을 보면 꽃이 될 수 있고, 산을 보면 산이 될 수 있어야 우리라 할 수 있다. 꽃을 보아도 꽃이 아니고,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니면 어찌 우리라 할 수 있겠는가.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을 수 있어야 우리라 할 수 있다. 나를 떠나서 네가 되는 것이 우리다.

자식이 없으면 엄마가 될 수 없고, 꽃이 없으면 꽃밭이 될 수 없듯, 이웃 없이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뤄야 부부가 될 수 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서로의 마음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고, 상대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부부다. 아내 없는 남편, 남편 없는 아내는 부부가 아니다. 너 없이 있을 수 없는 나, 부부에게는 내가 없고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본래부터 절대 마음인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 절대 마음에 비춰보면 나와 너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는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이며 어떤 경우에도 불성으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다. 우리는 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緣起) 법에 따라 나투어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나라는 것도 너라는 것도 없는 무아(無我)라는 것이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나라, 이런 말은 복수를 표현하는 뜻이 아니다. '우리'에는 나 아닌 네가 있고, 너 아닌 내가 있다. 즉 나도 없고 너도 없는, 불성만이 가득한다. 불성이 빛나는 우리의 밝은 웃음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준다.

〈작가〉

기자칼럼

복날 채식으로 복 지어 볼까요?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라 불리는 복날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올해 초복은 7월 15일, 중복은 7월 25일, 말복은 8월 14일이다. 몹시 더운 날씨를 가리켜 '삼복더위'라고 하는 것은 여름 한 복판을 세 번의 복날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부터 복날에는 보신(補身)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장만해서 먹었다. 된장을 푼 국물에 개의 고기를 넣고 양념해서 끓인 개장국, 닭의 고기로 만든 삼계탕 등이 그것이다.

반려동물 문화의 증가와 급변하는 생태, 기후위기 이슈 등으로 최근 육식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신을 위한 음식 대신 몸에 좋은 다양한 음식을 먹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가운데 몇 해 전부터 불교환경연대가 육류로 만든 보양식 대신 한달 간 채식을 지향하자는 '복날 채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실천 내용은 첫째, 복날에 육식 대신 채식을 하고 둘째, 빈 그릇 운동 실천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을 것. 셋째, 지속 가능한 지구생태계를 위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것 등이다. 또 채개장 만들기, 팥죽 나눔 등으로 채식을 권장하고 홍보한다.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오계의 으뜸인 불살생계,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계를 이해하고 삶의 지남(指南)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날 채식 캠페인에 동참해 채식을 활용한 복날 식문화를 불교계가 이끈다면 이는 불교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기회이자, 불교 가르침을 일반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복날 채식 식단을 개발해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불살생계를 평소에는 꾸준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올해 복날엔 보양식 대신 채식으로 복 짓는 건 어떨까? 건강한 채식을 통해 복날에 몸과 마음을 챙기고 지구도 살리는 여름을 만끽해보자.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급성 난소염으로 날아간 신혼부부의 단 꿈

방글라데시 줌머인 난민 수라보니씨 결혼 · 정착 위해 한국행
결혼 일주일만에 하혈 후 난소절제수술…병원비만 14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중생을 외아들처럼 여긴 지장보살처럼…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최근 60년간 우리나라 인구 풍속도는 완전한 변화를 겪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이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골목마다 가득하던 시대는 전설에나 나오는 일이 되었고, 광역지자체마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시점을 예측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이런 세태를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바로 교육 분야이다. 아이가 한 집에 열이든, 열 집에 하나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강화되고 강조되어온 분야가 교육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사교육 시장은 규모 면에서도 열정과 의지 측면에서도 공교육을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고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면 대학입시 준비가 시작되는 이상한 사회, 대학 적령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급격한 내리막길이어서 학령인구와 대학 정원이 비슷해졌는데도 1등만 살아남는 사회를 각인시키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입시경쟁, 그것이 기성의 어른들이 우리 청년과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교육이라는 현실이다. 숫자가 적어지면 경쟁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오히려 경쟁을 부추겨 온 현장,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각박한 현실이 기성의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약속했던 '우리의 아이들'에게 던져준 삶의 현실이다.

〈열반경〉 '사자후보살품'에는 보살이 성취하는 경지로 '일자지(一子地)'라는 것이 나온다. 경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일자지'를 성취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지를 성취하면, 이 인연으로 보살

저출산 시대에도 입시 교육 안 변해
'一子地'란 보살의 경지를 되새긴다
귀해진 아이들, 경쟁에 방치해선 안돼

이 모든 중생에 대하여 평등한 마음을 얻기 때문이며, 모든 중생들은 '일자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일자지(一子地)'는 중생을 외아들처럼 여기는 보살의 마음을 뜻한다. 크고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부모가 외아들 바라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곧 보살이 중생을 바라보는 애틋함이 부모가 외아들을 바라보고 보살피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것이다. 옛 방식으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곧 3대 독자나 5대 독자를 애지중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굳이 '일자지'를 언급하는 것은 요즈음의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조건지운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가 묻고 싶어서이다.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입시지옥으로 자식을 내몰아, 성적을 올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려 하지 않는 세태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묻고 싶어서이다.

〈금강삼매경〉 '총지품'에서 지장보살은 "내가 지금 깨달은 곳에서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교화하여, 매우 자비로우신 부처님처럼 본원(本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중생을 외아들처럼 여기는 경지에서 번뇌 속에 머물고자 하네"라고 말한다. 지옥중생도 마다하지 않고 구하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이다. 마지막 한 중생까지 다 구하고자 한다면, 중생 하나하나가 외아들이라 여겨져야 가능하다는 말일 것이다.

가뜩이나 귀해진 우리네 아이들은 더욱 소중하다. 한 집에 한 아이가 아니라, 여러 집에 한 아이이다. 지장보살 일자지(一子地)의 경계를 넘어선 현실에 있는 소중한 우리 아이를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아니라, 성적순의 암울한 현실에 방치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우리는 불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뉴진 스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1978년 출판되어 한국 현대문학의 고전이라고 평가받는 책이 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난쏘공)이라는 조세희 작가의 소설집이 그것이다. 이 책은 한참 산업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 도시 노동자의 삶을 통해서 당대 한국 사회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이 책을 보고 일부 평론가들은 조세희 작가를 시대의 그림자를 밝혀온 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막 지난 주말 오후, 부회장 소임을 맡고 있는 한 학회의 모임에 참석했었다. 종교사회학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대부분 이웃 종교를 믿는 이들이었다.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오간 안부 인사마다 뉴진 스님을 거론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뉴진 스님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그 짧은 시간 동안 법복 착용의 허용 범위, 불교와 승려에 대한 모독 여부, 눈높이 포교, 힙한 불교 등 다양한 논쟁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뉴진 스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논쟁이 드문 한국불교계에서 모처럼 전방위적 파장을 지닌 공 하나가 튀어 오른 셈이다.

이 글의 서두를 난쏘공과 조세희 작가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 것은 조세희 작가가 한국 사회에 쏘아올린 공을 뉴진 스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난쏘공·뉴진 스님, '절박함' 공통점
변화 가늠 못하는 '막막함'도 닮아
지금 절박함이 난제 극복 계기되길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두 사람이 쏘아올린 공은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다. 철거 후 죽음으로 내몰리는 난장이가 마주한 삶의 절박함이 탈종교화 추세 속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불교에서도 뻔히 보인다. 살아남기 위해 어디까지 변화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든 현실의 막막함도, 어스름하게 보이는 비상구도 닮아 보인다.

난장이의 절박함과 한국불교의 절박함은 객관적인 위기 상황을 모두가 내면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닮아있다. 난장이를 죽음으로 내몬 철거와 아파트 입주권이 누군가에게는 부의 원천이 되었듯이, 또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는 죽음을 택하고 누군가는 삶을 선택했듯이, 위기의 체감지수는 스님마다 그리고 불자마다 다른 것 같다. 뉴진 스님을 향한 MZ세대의 열광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난쏘공이 걸어온 길에서 오늘의 불교가 무언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작고한 조세희 작가는 난쏘공이 읽히지 않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한다. 아직도 난쏘공이 스테디셀러라는 점은 아이러니지만, 난쏘공의 독자들은 조세희 작가와 본인들이 희망했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끝없이 치열하게 고민했고, 희망을 놓지 않았다.

뉴진 스님이 쏘아올린 공이 어떤 논쟁을 불러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한국불교가 당면한 현실의 절박함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를 응원하고, 지혜를 모으고, 정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그 하나하나가 한국불교의 화두가 될 테니까.

社 說

한국불교학회 변화 시도에 거는 기대

자현 스님이 회장으로 취임한 한국불교학회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당장 올해부터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 논문 게재료를 완전 면제한다. 기준 분량이 초과될 시 받는 초과 게재료도, 전임 교원에 대한 게재료도, 사사(연구비 지원) 논문에 대해서도 게재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심지어 생애 처음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신진학자에게는 논문 심사료 9만원도 환급해준다.

이로 인해 한해 700~10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00만원을 기부해야 하지만, 자현 스님의 이 같은 시도는 이유가 있다. 논문 게재료를 면제해 일정한 고정 수입이 없는 신진학자들이 비용 걱정없이 논문을 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회 회원들의 연회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것도 불교학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연을 넓히기 위함이다.

학술대회 주제와 발표 방식 변화도 눈길을 끈다. "포털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 보편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의 중간에 있는 영역"에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대중적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발표 방식도 발제문을 일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닌 PPT형식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한다.

자현 스님은 "불교라는 큰 집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는 불이 난 곳을 못 찾아서 진화를 못하고 있다. 불이 난 곳을 찾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불교학회가 추진하는 일련의 변화들이 불교학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보살계 연구회' 결성에 부쳐

보살계(菩薩戒)는 본래는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의미하는 것이나 지금은 스님이든 속인이든 불도(佛道)를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계율로 인식된다.

보살계와 계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과 이상엽 서울대 교수가 중심이 돼 결성한 보살계연구회는 이름 그대로 보살계를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의 모임이다.

"계율만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불교계 학회가 없다는 학문적 갈증에서 연구모임을 결성했다"는 게 법장 스님의 설명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해인사 승가대학·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경남대 교양교육연구소는 7월 21일 오후 1시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보살의 이상과 현실- 인도에서 한국까지'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인도·중국·한국의 보살계 전반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향후에는 보살계뿐만 아니라 율장과 청규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율(律)은 '부처님의 행동'이라고 했다. 선·교·율 안에 팔만사천법문이 담겼다. 나날이 혼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불교 계율은 출재가 모두에게 중요한 윤리규범으로 다가온다. 계율을 전문으로 연구할 '보살계 연구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7월 1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4하계 종도 연수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국 남경 서화사에서 승랑대조사 다례재 등을 봉행하는 2024 하계 종도 연수를 진행하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7월 1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7월 1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보드가야 마하보디사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인도/네팔 성지순례

1차: 2024년 9월 22일 (8박10일 일정)
2차: 2024년 10월 10일 (8박10일 일정)
3차: 2024년 11월 17일 (8박10일 일정)
4차: 2024년 12월 19일 (8박10일 일정)
5차: 2025년 1월 2일 (8박10일 일정)
6차: 2025년 1월 11일 (7박9일 일정)
7차: 2025년 2월 11일 (10박12일 일정)

■ 일 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280~330만원






좋은 품질에 품격을 더하다!

카트만두 대한항공 직항

히말라야 설원에 꽃핀 부처님 불심

부탄/네팔 성지순례 5박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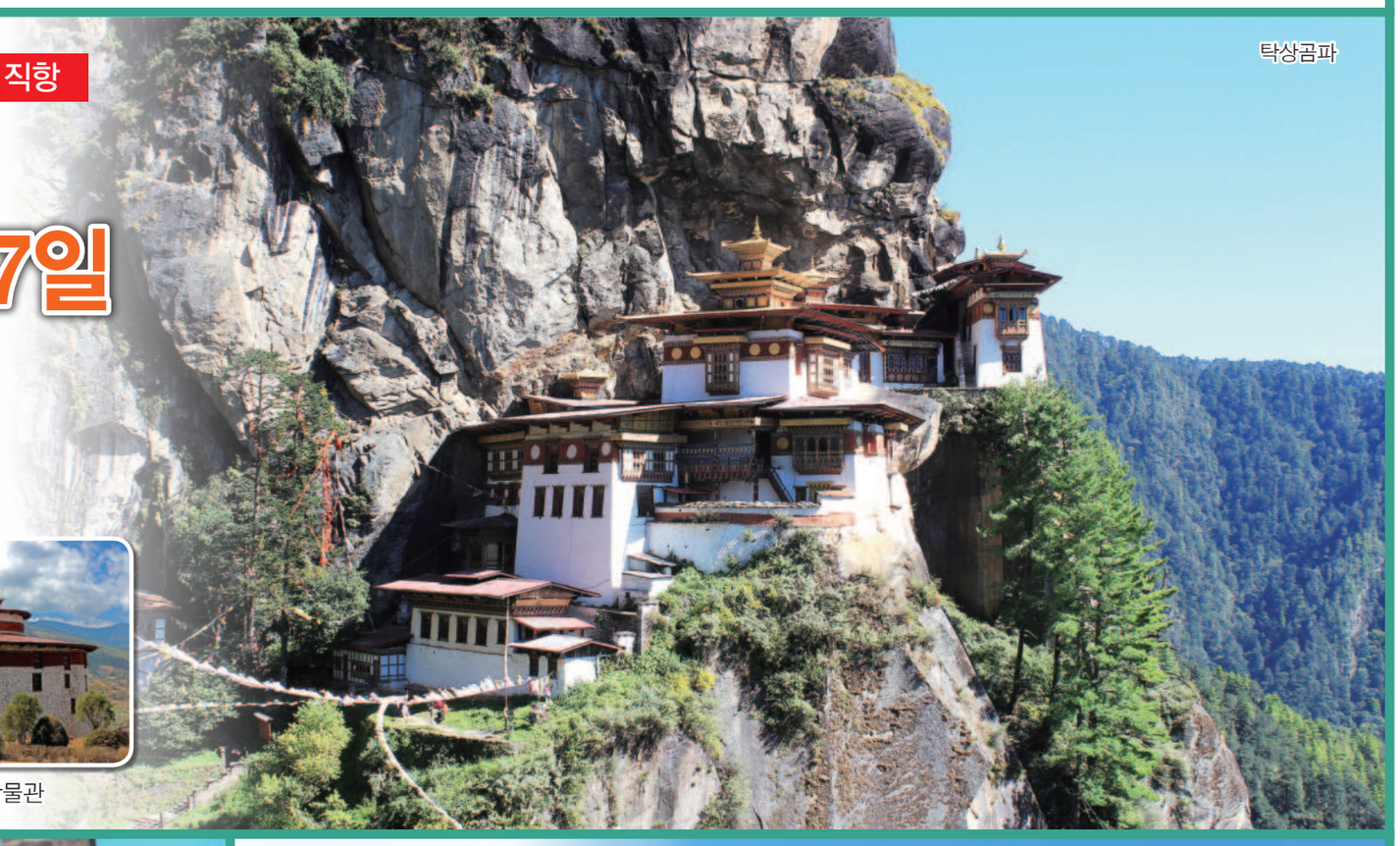
출발일: 2024년 10월 4일

■ 일 정 인천–네팔 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네팔 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문의

네팔 보다나트 스투파

부다포인트(도르덴마)


파로 국립박물관


탁상곰파


보로부두르 사원

화엄성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사원 +

신들의 고향

발리 4박6일

■ 동참금 249만원~

발리 울루와뚜 사원

중국 4대 불산

관음도량(보타산)
문수도량(오대산)
보현도량(아미산)
지장도량(구화산)

■ 동참금 문의


아미산

구화산

대만 성지순례 4박 5일


*대만 4대사찰 사전방문예약으로 편안하게 순례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의 나라
라오스 4박 6일



뜨거운 태양이 빛나는 불교의 나라
태국 3박5일

상 담 문 의 환 영

일본

오사카/교토 4일
도쿄/가마쿠라 4일
큐슈 온천 3일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4박6일

